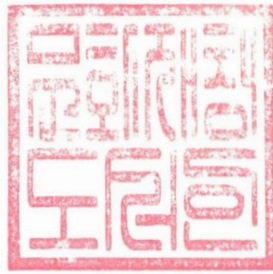


서원향사



書院享祀
병산서원



서원향사



書院享祀
병산서원·옥산서원

일러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병산서원》(2009년), 《옥산서원》(2010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에는 임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김경선(제례)·정승모(역사)·임형진(운영), 《옥산서원》은 이수환(역사)·정승모(제례)·이명진(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 故 정승모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 조사한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병산서원은 영남 유생의 추앙을 받는 유학자로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애 류성룡의 학문을 추앙하는 곳이며, 옥산서원은 사람의 도학적 정통 계승자로 천명되었던 회재 이언적의 요람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두 서원은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目次

009 I. 병산서원 향사

011 1. 병산서원의 역사

- 1) 병산서원의 역사적 배경
- 2) 병산서원의 건물과 배치
- 3)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 4) 병산서원의 제향인물

043 2. 병산서원의 향사

- 1) 춘추향사春秋享祀
- 2) 정알正謁
- 3)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 4)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121 3. 병산서원 향사의 특징

125 4. 병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운영과 조직
- 2)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3) 전승과 지속

137 병산서원 흥기





I



병산서원향사



立教堂



1. 병산서원의 역사

1) 병산서원의 역사적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서원 屏山書院은 서애 류성룡 西厓 柳成龍, 1542~1607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서원에는 사우 祠宇인 존덕사 尊德祠가 있어 그와 그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 修巖 柳珍, 1582~1635의 위판 位版을 모시고 있다. 병산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훼철 毀撤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병산서원 전경



병산서원에서는 매년 3월 초정^{初丁}인 첫 번째 정일^{丁日}과 9월 초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사적 제 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류성룡의 문집 등 1,000여 종 3,0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류성룡이 타계하고 6년 후인 1613년(광해 5)에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1563~1633}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존덕사를 창건하고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그 이듬 해에 완성되었다. 본래 병산서원의 전신은 고려 말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豐岳書堂}으로 풍산류씨^{柳氏}의 교육기관이었는데, 1572년(선조 5)에 류성룡이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다음은 『서애집』에 실린 「서애선생연보」(제 2권)의 기사다.

1614년(萬曆 42년) 4월 5일(정해)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위판을 봉안하고 석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 서원은 하외^{河隈} 상류 5리쯤에 있다. 풍산현^{豐山縣}에는 옛적에 풍악서당이 있었다. 선생은 서당이 국도 곁에 있어서 장수^{藏修}, 즉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곳으로 는 마땅치 않다고 여겨 본현의 학자^{學者}들을 설득하여 여기에서 옮겨 건립하였다. 이때에 와서 유생들이 그 곁에 사당을 세웠다.

『서애집』 중 「서애선생연보」(제 2권) 기사

也甲戌訃聞。命遣承旨致弔。傳上震悼輟朝。大臣卒逝。予甚慟悼。可令承旨往弔。既而六月癸巳。命下遺疏于備邊司。遺劄自上。當爲體念。下于備邊司。亦令議處。備邊司啓曰。柳成龍平日愛君憂國之心。惓惓不已。及其臨終。進劄辭意悲切。割中所陳。皆時務之急。而其論晉州事。益見其至死不忘。國事之誠心也。今奉道監兵使審當度。傳聞爲七月丁酉。葬于府西壽洞里子坐之原。初。京中士大夫聞先生之訃。皆於先生第遺各塵列狀致賻。○國制。大臣之喪。停朝三日。至是。市民等於三日外。加停一日。垂涕於道。曰。吾等品官。皆悲慟咨嗟。爭來弔哭。○鄰邑之人。無論士子。賻至葬時。士大夫及儒生來會者。四百餘人。有不食酒肉。過卒哭者。○後三十六年。仁和哭未遷。奉于中。洞癸坐。

四十二年甲寅四月丁亥。奉安位版於屏山書院。行釋菜禮。院在河隈上流五里許。豐山縣舊有豐之所。論本縣學子。移建于此。至是。儒生立祠其側。

四十八年庚申九月。奉屏山位版。附享于廬江書院。退溪李先生廟。院在府治東二十里許。士林以道祠爲安。奉屏山位版。配享于廬江。

天啓七年丁卯十月。奉安位版于南溪書院。院在縣西五里。卽南溪書堂舊址。

崇禎二年己巳二月。贈謚曰文忠。道德傳聞曰。文忠身奉。

1620년(광해군 12)에는 류성룡의 도가 퇴계 이황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존도사^{尊道祠}에서 철식^{徹食}: 위패를 주벽 좌우에 봉안하여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림의 공론에 따라 임천서원^{臨川書院}에 있던 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 1538~1593의 위판과 함께 류성룡의 위판을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을 모시는 여강서원^{蘆江書院}으로 옮겨 동서병배^{東西并配}, 즉 동·서로 나란히 배향^{配享}하였다.

그러나 1627년(인조 5)에 이르러 서애의 위패를 다시 존덕사에 옮겼다. 이해 7월에 서애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다음 달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당시 많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선생이 머물렀던 곳에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병산^{屏山}·담로^{湛盧}는 한 읍에 두 개의 서원으로서 '건녕^{建寧}의 고사'가 있다고 하면서 위판을 다시 병산서원에 봉안한 것이다. 건녕은 주자가 잠시 살았던 곳으로 병산은 주자^{朱子}의 스승 유자휘^{劉子翬}의 서원이고 담로^{湛盧}는 주자의 서원이다. 이전에는 스승과 제자를 모신 사당을 한 부^府에 둘이나 두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라 병산서원에 봉안하던 서애의 위패를 퇴계사당에 옮겼던 것인데, 이 때에 와서 중국 주자의 고사를 들어 위패를 다시 병산서원으로 옮긴 것이다.

여강서원은 호계서원의 전신으로 1573년(선조 6) 지방유림의 공의로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안동 월곡면 도곡동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1676년(숙종 2)에 '호계^{虎溪}'라 사액되었다. 그러나 이황은 도산서원, 류성룡은 병산서원, 김성일은 임천서원에서 각기 주향^{主享}으로 모심에 따라 호계서원은 강당만 남게 되었다.

병산서원은 1863년(철종 14)에 사액^{賜額}되었다. 그 해 10월 30일에 교리^{校理} 이계노^{李啓魯}가 임금을 만나는 자리에서 청액^{請額}하는 소^疏를 올렸고, 비변사에서 �액^{宣額}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12월 8일에 임금이 승하하여 편액은 받지 못하였다.





2) 병산서원의 건물과 배치

약간 비탈진 곳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세운 병산서원은 뒤에 화산花山이 있고 앞은 낙동강 상류에 물이 굽이치는 곳에 임해있다. 강 건너는 병산屏山이다. 경내의 건물로는 존덕사·입교당立教堂·신문神門·전사청典祀廳·장판각藏板閣·동재東齋·서재西齋·만대루晩對樓·복례문復禮門·고직사庫直舍 등이 있다. 서원 건물의 배치는 어느 경우나 교학敎學을 위한 강학 건물과 제향祭享을 위한 사당 건물, 그리고 부속시설 등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병산서원의 경우도 그러하다.

제향 건축물 : 존덕사, 전사청, 신문

강학 건축물 : 입교당, 동재, 서재, 장판각, 복례문, 만대루

부속 시설물 : 고직사庫直舍, 뒷간, 광영지光影池, 기타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존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기와집으로 풍관이 설치되어 있다. 처마는 겹처마로 단청을 하였다. 좌우에 계단이 있고 기단 앞 양측에는 8각 석주 위에 반원구의 돌을 얹어놓은 정료대庭燎臺가 있다.

존덕사 오른쪽에 자리한 전사청은 사당에 올릴 제수를 준비하는 곳이다. 대개는 사당과 한 울타리 안에 두는데 병산서원은 전사청과 사당이 담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주소廋所, 즉 제물과 음식을 다루는 공간이 있어 제수를 마련하거나 마련된 제수를 나르기 위해 사당 공간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는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묘지기·장무·정지지기들이 거주하였다. 고직사庫直舍라고도 한다.

강당인 입교당은 중앙의 3칸 대청마루와 양쪽 협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었다. 입교당의 원래 명칭은 숭교당崇敎堂이고 명륜당이라고도 불렸다.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기와집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가구架構는 5량樣이다. 동쪽의 협실은 명성재明誠齋, 서쪽은 경의재敬義齋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양쪽 협실에는 온돌을 설치하였는데 뒷마루를 둔 명성재에는 서원 원장院長이 머물렀다.

동재와 서재는 입교당과 만대루 사이의 마당 양쪽에 마주하고 있다. 각각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민도리집으로 크고 작은 2개의 방과 가운데 1칸 마루로 구성되었다. 강당 쪽 작은 방은 유사有司의 독방으로 서적을 보관하고 2칸 규모의 큰 방은 유생들의 방으로 동재에는 상급생이, 서재에는 하급생이 기거하였다.

장판각은 입교당 뒷면 왼쪽에 위치한다. 문집 등을 간행할 때 만든 책판冊版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도리가 없는 구조로 습기를 피하기 위해 정면에 모두 판문板

문을 달았다. 또한 화재를 막기 위해 다른 건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신문은 서원의 내삼문^{內三門}에 해당하며 향사^{享祀} 때 제관과 제물이 출입하는 문이다. 정면 3간의 솟을삼문으로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붉은 색을 칠하였다. 향사례에서 집례를 맡은 임원들만 신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 유생들은 신문 밖 마당에서 참관한다.

문루^{門樓}인 만대루는 휴식과 강학을 겸할 수 있는 장소다. 정면 7간, 측면 2간의 2층 팔작기와집에 처마는 홀처마로 되어 있다. 만대루와 복레문 사이에는 물길を 끌어 만든 광영지 연못이 있다.

전사청^{典祀廳}





존덕사 尊道祠



입교당 立教堂



1

2

1. 서재 西齋
2. 동재 東齋



장판각藏板閣



복레문은 서원의 정문으로 삼문^{三門}이다. 솟을삼문의 가운데 문은 판문^{板門}이고 좌우문은 담장과 구분되는 벽채를 한 칸씩 두고 있다. '복레'라는 이름은 『논어』의 '克己復禮爲仁'에서 유래한다. '만대'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한 구절인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백곡회심유^{白谷會深遊}'에서 따왔다.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물 무렵에 마주 대할만 하고, 흰 바위굴짜기는 여럿이 모여 늦도록 즐기 좋다'는 뜻이다.

광영지 연못은 만대루와 복레문 사이에 있다.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를 나타낸 방지^{方池}다. 현재에도 광영지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나타낸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달팽이 뒷간이라고 부르는 화장실도 병산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될 때 포함되었다. 서원 밖 주소^{廐所} 앞에 있다. 진흙 돌담을 시작 부분이 끝 부분에 가리도록 둥글게 감아 세워 놓았다. 옛날에는 대나무로 벽을 둘렀다고 한다.

달팽이 뒷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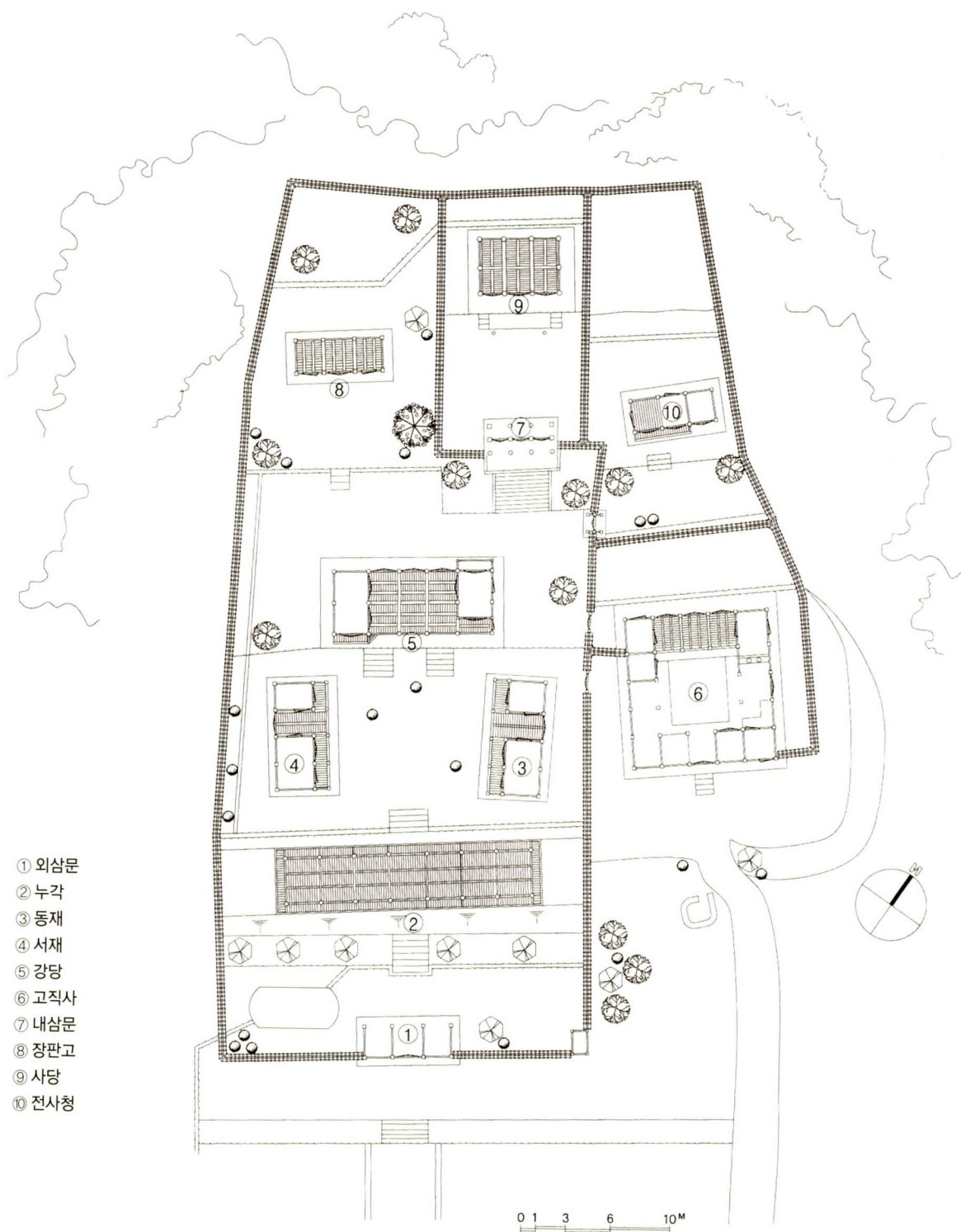








외삼문外三門



3)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1) 현전^{現傳} 소장 자료

병산서원 소장자료는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⁰², 『이조서원문고목록』⁰³,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보고서』⁰⁴ 등에 목록화 및 해제되어 있다.

02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제 20 권 '屏山書院篇'(1994)

03 이준희 편,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04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보고서』(2004)

구분	소장자료 종류	
① 전적	『가례언해 ^{家禮諺解} 』, 『서애집 ^{西厓集} 』, 『간재집 ^{杆齋集} 』 등	1,071종 3,039책
② 고문서	『서원요람 ^{書院要覽} 』, 『원임록 ^{院任錄} 』, 『입원록 ^{入院錄} 』, 『거재안 ^{居齋案} 』, 『강안講案』, 『심원록 ^{尋院錄} 』, 『토지노비안 ^{土地奴婢案} 』 등	58점
③ 책판	『서애선생문집 ^{西厓先生文集} 』, 『별집 ^{別集} 』, 『동몽수지 ^{童蒙須知} 』, 『도산급문록변정 ^{陶山及門錄辨訂} 』 등	25종 1,907점

(2) 서원운영 관련 고문서

17세기 중반 경에 병산서원의 서원운영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적은 치부책으로 『전여기^{傳與記}』가 있다. 전여^{傳與}란 그대로 전해준다는 뜻이다. 이 문서는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에 실려 소개되었다. 주로 원곡^{元穀}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통해 원곡을 증가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원곡의 증가는 매년 100석 가까이 되고 원곡과 이자의 합이 800여 석으로 규모가 커지면 전답을 구입하였는데, 이 전답에서 나오는 수입이 추가됨으로써 원곡과 이자의 규모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661년(현종 2)에는 약 568섬이 늘어 전체 원곡 규모가 1,468섬이나 되었다. 2년 후인 1663년(현종 4)에는 병산서원 운영주체인 하회 풍산류씨 종중성원간의 완의^{完議}에 따라 890섬을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원곡이 825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종중성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서의 마지막 기재 해인 1668년(현종 9) 9월 17일에 전여된 원곡 규모는 1,496석 3승 6합인데 그 안에는 그동안 사들인 전답이 빠져 있다. 1655년(효종 6) 이후로 나타나는 지출 내역의 큰 특징은 전답매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여기傳與記』

작성연대	1647~1668년(丁亥 ~ 戊申)
작성처	병산서원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탁)
수록책	『古文書集成』(第 20卷 : 屏山書院篇)
내용	17세기 중반경인 1647년에서 1668년 사이에 병산서원에서 주로 원곡 대출로 받은 수입 내역과 서원운영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적은 치부책이다. 예를 들어 이자수입은 1650년에서 1651년 사이 두 해간 곡식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합은 223섬 8말 8되였다. 이 고문서의 마지막 기재 해인 1668년 9월 17일에 전여된 수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丁未六月二十二日

傳受元穀 : 996石 14斗 8升 8합

秋便利 : 1296石 1斗 2升 4合

傳受留庫 : 10石

丁未秋打作 : 108石 4斗

加入還上各穀 : 31石 2斗 1升 1合

戊申牟打作 : 16石 7斗

秋打作 : 34石 1斗

已上 : 1496石 3升 6合

內

: 251石 2斗 1合 用下

: 21石 2斗 1升 六月居接時供僱下

: 1180石 4升 9合 未捧

: 18石 5斗 新分給

: 25石 11斗 7升 留庫

木 5同 23疋 6尺內

4同 35疋 用下 24疋 6尺 流來未捧

留庫 : 14疋

1647년(인조 25)에 전여받은 원곡은 405섬인데 이 중 『징비록』 출간과 관련하여 51섬 8말을 지출하여 353섬 7말이 남았다(이 일대에서는 1석=15승). 2년 후인 1649년(인조 27)에는 학봉집 등 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노림서원 魯林書院에 부조扶助한 지출이 있었다. 『비지문집 眞趾文集』은 남치리 南致利, 1543~1580의 문집이고 노림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치리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어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 밖에도 지출 내역에는 유생들의 여비 등을 지원한 경우(疏會儒生役只上京資裝時盡爲用下), 향사 때(壬辰年 : 1652년 春秋 享祀) 및 거접 居接하거나 강서 講書하는 유생을 지원

한 기록이 있다(接儒生 讀書儒生 凡百徭役計除).

1654년(효종 5)에는 도망노비가 남긴 환자를 대신 납부한 기록도 있다(逃奴姜梅名還上納).

1655년(효종 6) 이후로 나타나는 지출 내역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답매입이다.

乙未(1655년) 拾貳石拾貳斗 畝價

貳拾陸疋 則畝上餘價

丁酉(1657년) 貳拾參石陸斗柒合 畝價

己亥(1659년) 貳拾玖石玖斗伍合壹畝肆里 田畝價

잡물 구입의 경우 1655년(효종 6)에 22필로 신변와^{新燐瓦} 3,000장을 구입하였다. 1649년(인조 27)부터 1652년(효종 3)까지 잡물에 대한 전여기 1권이 있는데 구입한 제기^{祭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기	구입내용	비고
鎗燭臺	貳雙	
香爐	貳坐	
沙罇	貳坐	
鎗爵	貳雙	
簠簋	肆坐	
鎗仇只	貳	
鎗外竹	壹	
大甌	貳	神廚上
祭硯	貳	內 壹癸卯疏會時入納未推
匙	貳	丹玖加樂 內 柒加樂 食母等失
鎗箸	貳雙	
鎗行器	壹	
鎗仇只	壹	破
鎗鐵陸 內	壹	破
釜子	貳坐	
鼎	柒坐	內 壹坐 婢應分失 參坐破
古自里	壹坐	
樓上大盆	貳	破
櫃	伍	內 壹破 壹 庫前文書櫃 參 城上櫃
足盤	壹	竹柒立 內 捌立破
銀魚盤網	壹直	
酒盆	壹坐	
銀魚虛網	壹直	
冰網	貳立	

제기	구입내용	비고
大瓮	壹坐	神廚上
大所羅	壹坐	
庫前硯	壹	
奴婢案	壹卷	
際		

『문집반포기文集頒布記』

작성연대	1875년(乙亥)
작성처	풍산류씨 충효당
소장처	경북 안동시 하회 충효당
수록책	『古文書集成』(第 20卷 : 屏山書院篇)
규격 및 원본자료 매수	24×25, 6장
비고	『古文書集成』(第16卷 : 河回 豊山柳氏篇 II) 수록
내용	안동 하회 충효당에서 문집을 발간하고 이를 배포한 기록이다. 문집 서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새로 판각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있지 않아 1633년에 간행된 바 있는 『서애선생문집』을 복간한 것으로 보인다. 인출 ^{印出} 한 연대는 1865년이며 약 10년에 걸쳐 110개 처에 대한 반포를 끝내고 이와 같은 반포기록을 남겼다. 반포처는 집안과 교분이 깊은 타 집안 및 타 문중, (병산서원)원장 및 원장 역임자, 타 원우 ^{院宇} 등 영남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망라되어있다. 배포방식은 직송 ^{直送} 과 전차 ^{傳次} , 즉 간접전달방식을 동원하였다. 전차의 경우 가까운 친지나 서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처를 적은 다음에는 후기^{後記} 형식으로 배포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적었는데, 출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간연대 : 乙丑春(1865년)

2. 출간부수 : 100여 질

3. 출간 비용 :

수입금	582냥 7전
지출내역 紙價	307냥
印出 貫錢 및 粧綴雜費	216냥 3전
城上 및 諸下處로 지급	20냥
捧錢時 城上處로 지급	2냥
皮紙價	1냥
聚會時	2냥+몇 전
餘錢(院宇修理에 사용)	34냥

지출계 582냥 몇 전

병산서원「통문通文」제향인물 사제

작성연대	1931년
문서크기	28×36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내용	병산서원에서 1931년 10월 30일 돌린 통문이다. 이 통문 전에, 분천이씨汾川李氏들이 도산서원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농암 이현보李賢輔와 퇴계 이황의 사승관계를 말과 글로 퍼뜨렸다. 병산서원에서는 이 통문을 통해 '이는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고, 단지 400년 후(농암) 자손의 입에서 나온 말로서, 조상을 무고하고 더럽히는 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통문은 11월 16일에 작성된 것으로 도산서원에 모여 잘못을 바로잡자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병산서원「원규院規, 選錄」

여기서는 박종배의 논문「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⁰⁵를 인용하여 병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원규院規」를 소개한다. 원규는 임고서원臨臯書院의「서원규범書院規範」중에 소수·천곡·금오·도산서원 등의 원규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병산서원 원규를 추려 정리한 것이다.

05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18집 제 2호(2008)

유사有司

- 각자 상·하유사를 감당할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그 이름을 한 종이에 늘어 적은 후 권점한다.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상유사로 삼아 서원 내의 여러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유사는 미포의 출납과 공궤·염산嚴散·타작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행한다.
- 하유사가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차정된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계수하여 관에 보고해야 하며, 단지 문서로만 인수인계하는 것은 불허한다. 만일 숫자가 비는 것이 있으면 그 수를 보충하도록 한 다음에야 교체를 허락한다. 그 중 만약 태만함이 아주 심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아 전곡을 많이 모자라게 하고도 그 즉시 숫자를 보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유사가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계수하여 징수한다.

원사元士

- 무릇 서원에 받아들일 때는 유생이 모두 모여 각기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추천한 뒤 연소하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행실에 오점이 없고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취하여 그 이름을 함께 적어 놓고 권점하여 취한다.
- 무릇 군거할 때는 무엇보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삼가 예절을 지키며 의리를 강마함으로써 이택麗澤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여러 유생들은 강론의 여가마다 잡스런 일로 희롱하며 놀아서는 안되며 수시로 관혼 등의 의례와 사상견례·투호·향음의 의식을 강습함으로써 옛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를 거행하는 뜻을 살펴야 한다. 서로 담

론할 때 또한 향간의 음담패설과 이욕에 관계된 일을 거론해서는 안되며 오직 의리와
고금 인물의 현부, 치란의 득실, 문장의 고하만을 강론함으로써 견문을 넓혀야 한다.

- 회강하는 모습은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며 굳거하는 모습은 화목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정상의 우열을 품평해서는 안되며 바깥사람의 문장과 고을의 정사를 헐뜯거나 칭찬해서도 안되며 고을의 인물에 대해서는 착한 점은 칭찬하되 악한 점은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양현^{兩賢}

- 서원에 들어온 유생 중 5인을 상시 공양한다. 공궤한 수를 통계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궤에 별도로 저장한다. 만약 그 달에 유생이 모이지 않으면 그 비축미를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시 다음 날의 공미로 보태 저장하였다가 공궤한다. 1년 내에 유생들에게 소용된 달이 적어 비축미가 많이 쌓여도 다른 곳에 전용해서는 안된다. 수년 뒤에 공미의 숫자가 많아지고 유생이 상수 이외에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는 임시로 작성하여 상시 공양하는 5인 이외에 수를 헤아려 제공해도 무방하다.
- 찬가^{饗價}로 1년에 통용하는 잡곡이 3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 매 달 2석 5두를 사용하고 매달 점검하여 별도로 저장해 두었다가 유생이 많이 모이는 달에 공미의 예에 의거하여 전용한다.
- 상·하 유사와 타 빈객으로 무시 출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유생에게 제공되는 공미를 사용하여 어지럽게 섞이고 불려나가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분명하게 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훗날 점고에 전거로 삼도록 한다.

상정^{相正}

- 여러 유생 중 만약 독서에 힘쓰지 않고 날마다 드나들며 직접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고 혹 잡기를 일삼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경우는 대면하여 꾸짖고 엄중한 경우는 쫓아낸다.
- 타인의 짐을 멋대로 풀어보거나 사사로운 책을 몰래 보는 자는 대면하여 꾸짖는다.
- 전복에게 폐를 끼치는 자는 쫓아낸다.

전복^{典僕}

- 무릇 서원 내의 하인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원장과 유사에게 고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4) 교육, 강학 관련 고문서

박종배의 논문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에는 「원규院規」 외에 「통독안通讀案」(신축, 1781년), 「거재안거齋案」(신축·임인, 1782년), 「강안講案」(기유, 1789년) 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뒤의 세 건의 자료는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20권의 「병산서원편屏山書院篇」에 들어 있는 고문서 자료들이다. 이 3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주체로 2012년 6월 15일에 있었던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워크숍에서 김자운이 발표한 논문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⁰⁶ 을 인용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18세기 말 병산서원의 교육과정으로서 ‘통독通讀’과 ‘거재居齋’, ‘고강考講’이라는 강학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6 김지운, 「서원 강학 관련자료의 유형과 특징」,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 의례』 워크숍 발표문(2012)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

작성연대	1678~1679년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탁)
수록책	『古文書集成』(第 20卷 : 屏山書院篇)
내용	「원중가행조건」은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안에 향례취사개규통문享禮聚士改規通文·묘내의절廟內儀節·원사절목院事節目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병산서원기사」는 1718년에 원장 이협李浹이 서원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 「원중가행조건」은 그 권수卷數에 실려 있다. 「원중가행조건」은 유생 공궤와 향사 때 재정운영, 노비주새 등에 관한 기록이다.

「거재안거齋案」

작성연대	1781~1782년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탁)
수록책	『古文書集成』(第 20卷 : 屏山書院篇)
내용	「거재안」은 1781년부터 1782년까지 한 차례의 통독과 두 차례의 거재에 대한 기록으로 참여자의 명단 중심으로 기록한 강안류講案類 자료다. 1781년의 기사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원장 류종춘柳宗春의 주도로 총 107명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나머지 두 차례의 거재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설된 삼동거재三冬居齋다. 두 차례 모두 10월 16일~12월 15일까지 보름씩 4순巡으로 나누어 윤번으로 시행되었으며, 순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7명까지 참여하였다.

「강안講案」

작성연대	1789년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탁)
수록책	『古文書集成』(第 20卷 : 屏山書院篇)
내용	강안은 1789년 2월 1일과 4월 2일 두 차례의 고강考講 기록이다. 2월에는 강생 41명과 동몽 22명, 4월에는 강생 25명과 동몽 20명이 강한 서책의 범위·성적·자·생년 등을 기록하였다. 고강 서책으로는 사서삼경과 소학 등이다.

4) 병산서원의 제향인물

병산서원의 사우인 존덕사에는 류성룡을 주벽^{主壁}으로 하고 아들 류진이 배향되어 있다. 이들은 풍산류씨^{豊山柳氏}다. 유절^{柳節}을 시조로 하는 풍산류씨는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7세 류종혜^{柳從惠} 때 이곳에 정착하였다. 12세 류중영^{柳仲郢}, 1515~1573과 그의 장남 13세 겸암 류운룡^{謙巖柳雲龍}, 1539~1601이 종손으로 불천위제사를 받음으로써 두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둔 양진당^{養眞堂}이 대종택^{大宗宅}이 되었고 유중영의 호를 따서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고도 한다. 차남인 13세 류성룡도 불천위로서 별도의 사당을 갖게되어, 대대로 그의 종손이 살고 있는 집이 충효당^{忠孝堂}이다.

(1)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



류성룡 위패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로 1542년(중종 37)에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유공작^{柳公綽},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유중영이며, 어머니는 진사 김광수^{金光粹}의 딸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일찍이 퇴계의 문인으로 들어가 『근사록^{近思錄}』을 전수받았다. 1564년(명종 19) 사마시를 거쳐, 다음 해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한 후, 1566년(명종 2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승문원권지부정자가 되었다. 이듬 해 정자를 거쳐 예문관검열로 춘추관기사관을 겸직하였다. 1568년(선조 1)에 대교, 다음 해에 전적·공조좌랑을 거쳐 감찰로서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 해 돌아왔다. 이어 부수찬·지제교로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춘추관기사관을 겸한 뒤, 수찬에 제수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이후 정언·병조좌랑·이조좌랑·부교리·이조정랑·교리·전한·장령·부응교·검상·사인·응교 등을 역임한 뒤, 1578년(선조 11)에 사간이 되었다. 이듬 해 직제학·동부승지·지제교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을 겸하고,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1580년(선조 13)에는 부제학에 올랐다. 1582년(선조 15) 대사간·우부승지·도승지를 거쳐, 대사헌에 올랐다. 1583년(선조 16)에 다시 부제학이 되었으며, 그 해 함경도관찰사에 특제되었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어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듬 해 예조판서로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제학을 겸하였다. 1588년(선조 21)에 양관대제학에 올랐으며, 다음 해 대사헌·병조판서·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1589년(선조 22)에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여러 차례 벼슬을 사직하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자 소^疏를 올려 자핵^{自劾}하였다.

1590년(선조 23) 우의정에 올라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다음 해 우의정으로 이조판서를 겸하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하면서 이조판서를 겸하

였다. 같은 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서인 정철^{鄭澈}의 처벌이 논의될 때 동인 중의 온건파인 남인^{南人}에 속하여 같은 동인의 강경파인 북인^{北人}의 이산해^{李山海}와 대립하였다.

1592년(선조 25) 4월 14일 일본이 대거 침입하자 병조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하였으며,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 등 명장을 등용하였다. 이어 영의정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하였으나 평양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도체찰사가 되고, 이듬 해 명나라의 장수 이어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고 충청·경상·전라 삼도도체찰사가 되어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의 도체찰사를 겸하여 군사를 총지휘하였으며, 이어송이 벽제관^{碧蹄館}에서 대패하여 서로^{西路}로 퇴각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권율과 이빈^{李賓}으로 하여금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고 제장^{諸將}에게 방략을 주어 요해^{要害}를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4월에 이어송이 일본과 화의하려 하자 글을 보내 반대하였다. 10월에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훈련도감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제조^{提調}가 되었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경략^{經略} : 군사에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 특별히 설치하는 벼슬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러 가지 않는다는 북인들의 탄핵으로 관작을 삭탈 당하였다가 1600년(선조 33)에 복관되었으나 다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1605년(선조 38)에 대홍수로 집을 잃고 강 건너 옥연정사에서 잠시 거처하다 9월에 풍산을 학가산 기슭으로 이사하였다. 이듬 해 3월 농환재^{弄丸齋}로 이름을 붙인 초가를 마련하였고 은거한지 두 해가 지난 1607년(선조 40) 음력 5월 6일에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7월에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묘는 안동시 풍산을 수이리 뒷산에 있다.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2) 수암 류진^{修巖 柳珍}

류진^{柳珍}, 1582~1636은 서애 류성룡의 셋째 아들로 1582년에 태어났다. 자는 계화^{季華}이고 호는 수암^{修巖}이다.

임진왜란 이후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0년(광해군 2)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12년(광해군 4) 해서지방에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났을 때에 무고를 당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616년(광해군 8)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다시 학행으로 천거되어 봉화현감이 되었다.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묘^{田畝}와 부세^{賦稅}를 바로잡았다. 이듬 해 형조정랑^{刑曹正郎}이



류진 위패

되었는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옥^{冤獄}을 해결하여 판서 이서^{李曙}의 경탄을 샀다.

1627년(인조 5)에 청도군수가 되었다가 이듬 해에 수포장인^{收布匠人}에 대한 보고에 허위가 있다 하여 파직 당하였다. 1634년(인조 12)에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때 장령 강학년^{姜鶴年}이 당시 서인정권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심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를 두둔하여 대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세신^{世臣}의 후예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보냈다. 대표 저서로는 『수암집』이 전한다. 류성룡과 함께 병산서원의 존덕사에 제향되었다.

병산서원위차도(屏山書院位次圖)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

贈吏曹參判修庵柳先生

사당입구

(3) 병호시비

퇴계 이황을 모신 호계서원의 좌배향(左配享 : 주벽을 중심으로 왼쪽에 위패를 둘)을 두고 벌어진 분쟁으로, 가운데는 퇴계를 두기로 결정하였으나, 퇴계의 두 제자인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중 누구를 왼편에 배향하느냐로 400년 동안 대립하였다. 이후 안동 유림은 풍산류씨를 따르는 병산서원파와 학봉을 지지하는 호계서원파로 나뉘어 4세기에 가까운 기간동안 이른바 병호시비(屏虎是非)를 벌였다. 병산서원파는 벼슬의 지위를 따져 호계서원에 서애의 위패를 왼쪽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계서원파는 나이로 보아 학봉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시비의 첫 번째는 정경세가 연치보다는 작위의 차이를 높여 서애를 동쪽에 배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05년(순조 5)에 영남 유림들이 서애·학봉·정구·장현광의 네 학자에 대한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청원하면서 그 순차를 놓고 시비가 더욱 커졌다. 결국 모두 문묘종사에 실패하였고 이후 영남 유림들은 병유(屏儒)와 호유(虎儒)로 더 심하게 대립하였다.

1812년(순조 12) 호유에서 호계서원에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1711~1781)을 추가로 배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병유에서 적극 반대하였고 결국 호계서원과 절연하고 서애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옮겨버렸다. 1820년(순조 20) 8월에 병유들이 주장하는 묘위잠전(廟位潛遷)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2009년에 양가의 종손이 합의하여 400년에 걸친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4) 서애 유적

원지정사(遠志精舍)와 연좌루(燕坐樓)

류성룡이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 때 지은 건물이다. 1573년(선조 6)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원지정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북향의 맞배지붕집으로 동쪽으로 1칸은 대청, 2칸은 온돌방을 만들었다. 원지(遠志)란 집에 있을 때는 원대한 뜻을 품고 밖을 나서면 조그만 풀처럼 겸손하라 “처즉위원지(處卽爲遠志), 출즉위소초(出卽爲小草)”라는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정사 서쪽으로는 연좌루가 있다. 정면 2칸, 측면 2칸 크기로 팔작지붕집이다. 누마루에 오르면 강가의 소나무 숲과 화천 건너편 부용대, 옥연정사가 보인다. 중요민속자료 제 85호다.

영의정문충공서애류선생지묘(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之墓)와 수동재사(壽洞齋舍)

류성룡의 묘는 풍산을 수동에 있다. 묘소에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之墓(영의정문충공서애류선생지묘)’라는 묘전비만 있는데, 손자인 졸재 류원지(拙齋 柳元之, 1598~1674)가 묘갈명(墓碣銘)을 짓고 1764년(영조 40)에 외(外) 6대손 대신 이상정(大山 李象靖)이 글씨를 썼으며 6대손 도사 류규가 세

웠다. 신도비는 유명(遺命)이 있어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재실(齋室)인 수동재사(壽洞齋舍)는 묘소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 풍산을 수리에 자리하고 있다. 1611년(광해 3) 승려 포우(甫右)의 도움으로 2칸으로 재사를 짓고 상로재(霜露齋)라는 현판을 달았다고 한다. 현 재사는 정면 8칸, 측면 7칸 규모로 1600년(광해 2)대 중반에 증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 127호이다.

충효당(忠孝堂)

해회마을 내에 있는 서애의 종가(宗家)로 보물 제 41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에 지은 총 52칸 규모의 건물로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자리 잡았다. ‘一’자 모양의 사랑채와 ‘口’자 모양의 안채가 연이어 있는데,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이다. 사랑채 온돌방 옆에 대문간이 있어서 안채로 들어가면 중정(中庭)을 둘러싸고 동북쪽에 부엌이 있고, ㄱ자로 꺾여 안방·대청·건넌방이 있다. 건넌방 앞에는 마루와 2칸의 온돌방과 부엌이 있으며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다. 부엌 앞에는 찬방·고방·헛간이 있고 중문간 행랑채와 연속되어 있다. 사당은 사랑채 동쪽 담장 속에 있다. 충효당은 류성룡의 손자 졸재 류원지가 내당을 짓고 증손인 병조 판서 눌재 류의하(訥齋 柳宜河, 1616~1698)가 확장 중수하였다고 한다.

옥연정사(玉淵精舍)

옥연정사는 1586년(선조 19) 화천(花川) 건너 부용대(芙蓉臺) 기슭에 있다. 문간채·바깥채·안채·별당을 갖춘 서당이다. 문간채는 ‘一’자형이고, 바깥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다. 안채는 8칸 겹집으로 부엌이 중앙에 있고 방이 부엌을 중심으로 2칸씩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별당채는 바깥채와 안채 사이에 있는데 앞면 3칸·옆면 2칸이다.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 88호로 지정되었다.

(5) 서애 저작

류성룡의 저서로는 『서애집(西厓集)』, 『징비록(懲步錄)』,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관화록(觀化錄)』, 『운암잡기(雲巖雜記)』, 『난후잡록(亂後雜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무오당보(戊午黨譜)』, 『침경요의(鍼經要義)』 등이 있고, 편저로는 『대학연의초(大學衍義抄)』, 『황화집(皇華集)』, 『구경연의(九經衍義)』, 『문산집(文山集)』, 『정충록』, 『포은집』, 『퇴계집』, 『효경대의(孝經大義)』, 『퇴계선생연보』 등이 있다. 문인 정경세(鄭經世)에 의하면 그가 평생 지은 시문이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남은 것이 문집 10권과 『신종록』, 『영모록』, 『징비록』 등이라고 하였다.





목연정사

『징비록懲毖錄』(1책, 필사본, 국보 제 132호)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고 군무^{軍務}를 지휘하였던 서애가 조정에서 물러나 귀향하여 정리한 저술로 1592년(선조 25)부터 1598(선조 31)년까지의 7년간의 기록이다. 임진왜란 이전 일본과의 교린관계^{交隣關係}를 비롯하여 백성들의 항쟁, 명나라의 구원병 파견 및 제해권 장악 등 전황^{戰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의 「주송^{周頌}」 ‘소비장^{小毖章}’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後患}”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서애가 직접 밝혔다. 필사본이던 것을 조수익^{趙壽益}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서애 손자의 요청으로 1647년(인조 25) 16권 7책으로 간행하였다.

『진사록辰巳錄』(2책, 필사본, 보물 제 160-1호)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와 영의정을 겸했던 서애가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에 왕에게 올렸던 군국정무^{軍國政務}에 관한 서장書狀을 후에 등사^{謄寫}한 책이다.

『난후잡록亂後雜錄』(2책, 필사본, 보물 제 16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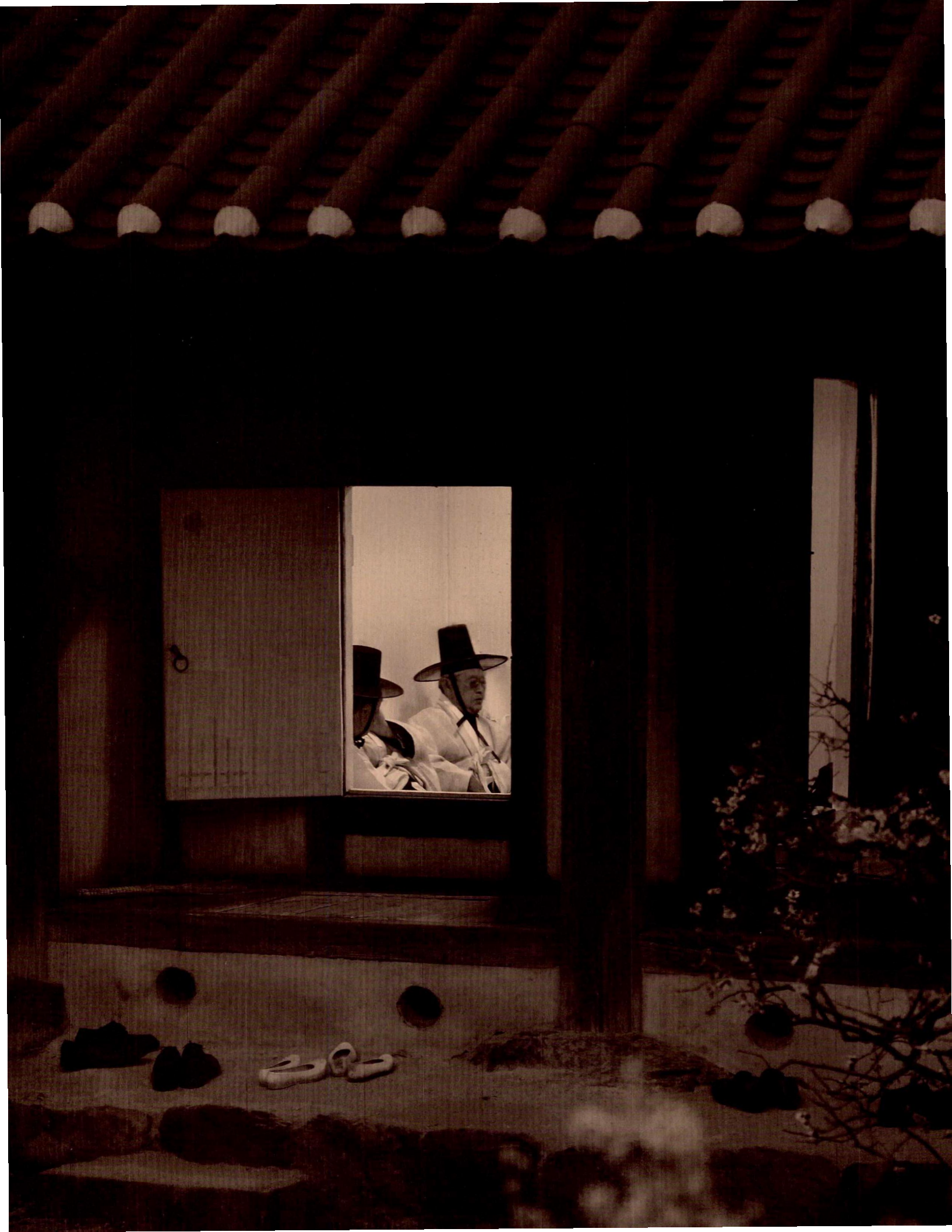
서애가 임진왜란 후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책으로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에 들어 있다.

『근폭집芹曝集』(2책, 필사본, 보물 제 160-3호)

서애가 임진년부터 병신년(1596)까지 왕에게 올린 군국 정무에 관한 차자^{劄子}·계사^{啓辭}를 베껴서 엮은 책이다. 근폭^{芹曝}은 중국 송나라 농부가 늘 삼베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다 봄이 와서 따뜻한 햇볕을 쬐자 임금님께 이 따스함을 드리고 싶다고, 미나리의 맛을 보고는 맛있는 미나리를 임금님께 드려야겠다고 한데서 연유한 말이다. 서애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을 때 직접 베껴서 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초본^{草本} 외에도 간본^{刊本}이 전하고 있다.

『서애집西厓集』

서애의 시문집으로 20권 11책으로 구성되었으며, 목판본이다. 1633년(인조 11)에 아들 류진이 합천군수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2. 병산서원의 향사

1) 춘추향사^{春秋享祀}

(1) 향사일시

병산서원은 매년 춘추 음력 3월, 9월 상정일^{上丁日}에 행사한다. 조선시대 국가전례는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서 제향 봉행일자도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 국가대사인 종묘대제가 사계절의 맹월^{孟月}: 각 계절의 첫 번째 달에 길일을 택하여 봉행하고, 석전은 춘추의 중월^{仲月}: 두 번째 달 초정일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학인 서원은 중월의 중정일 이후, 또는 계월^{季月}: 마지막 달의 정일^{丁日}에 봉행하는 것이 예의 서차로 되어 있었다. 이곳 안동지방에서는 당시 스승인 퇴계의 도산서원 향사가 춘추 중월(2월과 8월)의 중정일에 행사하기 때문에 병산서원은 계월(3월과 9월)의 초정일에 봉행해 오고 있다. 단, 국기일^{國忌日}이 겹치면 다음 정일^{丁日}로 연기하여 행사한다. 국기일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기일을 말하는데, 서원의 강당 벽에 춘추향사일의 국기일 비망록이 적혀 있다.

행사시각은 종래 축시^{丑時}: 오전 1~3시에 지내왔으나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수업편의를 위하여 이른 아침에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서원의 역할은 존현^{尊賢}과 양사^{養士}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전통을 이어 받아 학생들이 향사에 참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009년도 춘향 때에는 학생 대표 8명이 참례하였으나 추향 때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2) 향사 준비

제관천망

병산서원 향사의 헌관 및 제집사는 서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망기^{望記}를 보내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애 류성룡의 종손(14대 류영하)과 풍산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 위원은 이 지역의 서애 제자 문중에서 학덕이 높은 사람을 천거 받아 선임한다. 서원의 설립목적이 존현양사^{尊賢養士}에 있는 만큼 병산서원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풍산고등학교 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사 약 한 달 전 운영위원회에서 헌관을 비롯하여 축과 집례 등 6집사를 미리 선임하고 망기를 발송한다. 초헌관은 원장(수임)이 되고 아헌관·종헌관·분헌관 등 헌관 3인은 유림의 지도자로서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관선정



제수구입

제수는 유사가 중심이 되어 구입한다. 어물과 채소 등은 재래시장인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구입한다. 제수는 소고기 · 무 · 미나리 · 밤 · 대추 · 명태 · 대구포 · 돼지(생저) · 쌀 · 기장 등을 구입하고, 그 외 제관들을 접대할 음식 등도 함께 구입한다. 특히 제수로 사용할 것들은 크고 깨끗한 것을 구입하며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생수 · 계란 · 김 등을 비롯한 기타 제수 및 사용품은 구입이 편리한 마트(안동 신시장마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구입한 제수는 병산서원의 옆에 위치한 주소(廚所)로 옮긴다. 주소는 제수를 다듬고, 제관들의 식사 등을 준비하는 곳이며, 제수의 검수와 근봉(謹封)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제수구입







제주 담그기

제주에는 서애 종택인 충효당의 14대 종부 최소희씨가 담근 가용주를 사용한다. 원래 충효당 가용주는 홉술을 담갔으나, 지금은 종부의 친정집인 교촌(경주)에서 담그는 덧술을 만들어 쓴다. 덧술은 밑술을 먼저 만들고, 더하여 술을 담그는 것을 말한다.

밑술은 찹쌀로 죽을 쑀 후 누룩을 섞어 5일 정도 발효시킨 것이다. 그 다음 고두밥을 만들어 식힌 후 큰 대야에 넣고 누룩 가루와 골고루 섞은 후 밑술을 붓고 고두밥을 풀어준다. 항아리에 넣은 다음 두꺼운 이불로 잘 싸서 약 15일 정도를 발효시키면 덧술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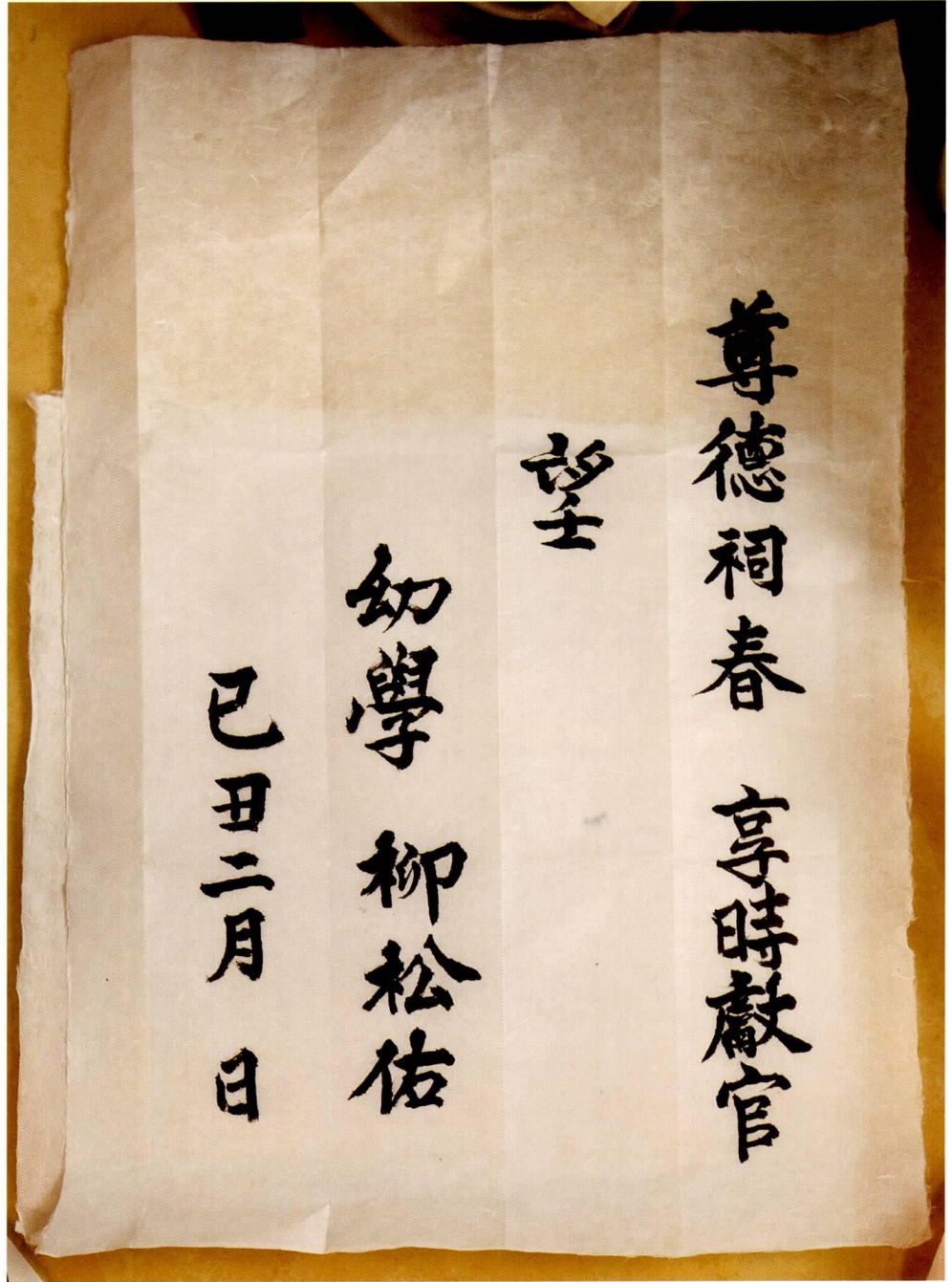
덧술이 완성되면 용수를 박아 술을 거르는데, 용수만으로는 부유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를 사용하여 몇 번 더 걸러낸다. 걸러낸 술은 플라스틱 병(생수병류)에 넣어서 냉장보관을 한다. 그리고 냉장보관 중에도 술이 가라앉으면 위의 맑은 술만을 걸러내는데, 이것을 두 번 정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맑은 술이 만들어진다. 이번 술은 2009년 4월에 담갔으며, 추향사 때 제주로 사용하였다.



12. 제주 담그기



망기望記 작성





(3) 재계齋戒

입재入齋

종래에는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를 한다. 그러나 유사들은 향사 2일 전부터 제물 장보기를 비롯하여 제기 점검 및 제수 근봉 등 향사 준비를 한다. 추향 입재일이 마침 음력 9월 초하루여서 삭분향례朔焚香禮를 행하는 날이다. 서원의 유사는 아침 6시 존덕사尊德祠 묘정에 올라 사당에 들어가 향로에 향을 피워 분향례를 올린다. 정위와 종향위의 위패를 개독하여 봉심奉審하고 묘내의 제구祭具들을 세밀히 점검한 후 다시 묘정에 나와 재배하고 예를 마친다.



입재하는 유림들

제관들은 입재일 오후 3시까지 서원에 도착하여 정문(복례문) 밖에서 예복을 갖추고 서원에 들어간다. 제관들은 먼저 시도기時到記에 입재 등록을 마치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시도기는 성명과 관향 및 생년 등을 기록하는 일종의 방명록으로 나중에 분정할 때에 참고할 뿐만 아니라 서원의 역사기록으로 남게 되는 문서이다.



1. 시도기時到記에 입재 등록
2. 홀기를 보고 있는 제관





집사분정執事分定

제관들은 4시경 강당(입교당)에 모여서 제관 분정을 한다. 동벽 남쪽에서부터 초헌관을 필두로 하여 헌관 이하 축과 집례가 차례로 좌정하고 다른 제관들은 연령순으로 서쪽과 남쪽에 중앙을 향하여 둘러앉는다. 배석이 끝나고 학생이 “개좌開座 아뢰오”라고 세 번 외치면 모두 일어서 상읍례相揖禮를 행하고 자리에 앉는다.

강당 서북쪽 벽에 걸려 있는 제관 분정판을 내린다. 여기에는 지난 향사의 제관 명단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한지를 붙이고 이번 향사 제관의 명단을 써 넣는다. 분정판은 원위와 종향위 둘로 나뉘어 있다. 종향위에는 헌관은 분헌관 1인만 있고 축이 없다. 2009년도 춘추향사의 제관 분정은 다음과 같다.

己丑三月初七日春享時

學	盥	滌	掌	供	司	奠	奉	奉	奉	贊	謁	贊	陳	祝	終	亞	初			
生	洗	器	饌	飯	尊	爵	爵	鑪	香	引	者	者	設	官	獻	獻	獻			
柳	柳	金	柳	權	南	安	申	趙	崔	柳	柳	趙	高	李	趙	權	趙	李	朴	金
原	漢	時	主	漢	寧	東	奎	誠	晉	雄	漢	誠	明	有	誠	晚	大	世	完	棕
	郁	柱	扞	秀	熟	國	鎬	正	吉	惇	秀	東	煥	吉	虎	集	衡	淵	洙	煥

집사분정 원위執事分定 元位, 기축己丑 3월 7일 춘향春享

己丑三月初七日春享時

學	滌	掌	供	司	奠	奉	奉	奉	陳	獻					
生	器	饌	飯	尊	爵	爵	鑪	香	設	官					
千	金	李	邊	鄭	金	金	金	權	趙	申	柳	柳	趙	李	柳
原	永	成	喆	武	敏	映	星	秉	在	奎	吉	正	佑	虎	郁
	旼	煥	源	鎮	牛	宰	年	德					夏		佑

집사분정 종향위執事分定 從享位, 기축己丑 3월 7일 춘향春享

己丑九月初二日秋享時
 初獻官 崔昌坤
 亞獻官 宋明植
 終獻官 鄭圭東
 祝 洪永瑞
 陳設 柳碩佑
 贊者 柳時柱
 謁者 權奇達
 贊引 李權
 奉香 金漢哲
 奉鑪 權鍾甲
 奉爵 金仁鉉
 奉爵 柳再佑
 權純煥
 申正
 柳哲榮
 南東國
 金圭一
 金仁燮
 金秉益
 柳時彰
 柳漢承
 學盥洗位 生器

집사분정 원위執事分定 元位, 기축己丑 9월 2일 추향秋享

己丑三月初七日春享時
 獻官 金碩基
 陳設 金東湑
 奉香 柳漢郁
 奉鑪 李熙喆
 奉爵 柳再佑
 柳時在
 柳宰夏
 李載卓
 金丙模
 掌饌 柳大植
 金仁燮
 金東秀
 學滌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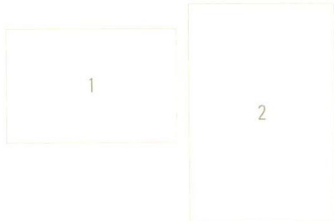
집사분정 종향위執事分定 從享位, 기축己丑 9월 2일 추향秋享

분정이 끝나면 학생이 분정판을 들고 먼저 초헌관에게 보여드린 후 좌중을 한 바퀴 돌며 분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함과 아울러 각자의 소임을 주지시킨 후 다시 원 위치에 게판揭板한다. 이 명단은 6개월 후 다음 향사까지 붙어 있게 된다.



집사분정을 위해 입교당에 모인 유림들





1.2. 집사분정執事分定

己丑年正月初七日春亭時

金棕煥

朴浣洙

李世淵

趙大衡

權晚集

趙誠虎

李有吉

高煥

趙誠東

權鍾甲

柳雄吉

崔晉悳

趙誠古

申安奎

柳維年

金三行

柳時

初獻

亞獻

終獻

陳祝

陳設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賓賓者



분정판은 강당 서북쪽 벽에 게판(揭板)



분정이 끝나면 제관들이 각자의 소임 확인

축문수축 祝文修祝

분정이 끝나면 축은 초헌관을 모시고 묘우(존덕사)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수축한다. 축은 북향하여 쓰고 초헌관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이를 감독한다.

<祝文>

維歲次己丑三月辛未朔初七日丁丑幼學義城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學博而要見徹
以實莊敬之功表裏如一謹以清酌猪牲祇薦
時事以
贈吏曹參判修巖柳公從享尚
饗

維歲次己丑三月辛未朔初七日丁丑幼學義城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學博而要見徹
以實莊敬之功表裏如一謹以清酌猪牲祇薦
時事以
贈吏曹參判修巖柳公從享尚
饗





제물봉치祭物奉置

향사에 올리는 제물은 제기에 실찬^{實饗}하기 앞서 초헌관 및 재유사^{齎有司} 4인의 입회하에 근봉^{謹封} 의례를 행한다. 제물봉치는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면서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고지기는 제수 물목을 각각 정결히 다듬어 소정의 용기에 담아 주사^{廚舍} 대청 북쪽에 잘 정돈해 놓고 그 앞에 초헌관과 집례 및 재유사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

저녁 7시 30분경 초헌관과 집례, 재유사가 주사의 대청에 올라 상읍례를 하고 좌정한다. 집례가 물목단자를 하나씩 부르며 고지기가 각 품목별로 수량을 확인시킨 후 용기에 담아 근봉한다. 쌀·기장·대추와 밤은 자루에 넣고, 어해·육해 등 물기 있는 제수는 항아리에 담는다. 제주는 술독[樽]에 담아 근봉한다. 근봉은 한지에 '謹封'이라고 써서 각 용기를 봉합한다. 근봉한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열어 볼 수 없고, 더 추가해 담을 수도 없다.

서원에 전승되어 오는 향사 물목단자는 다음과 같다

<正位祭需物目>

大米三升	: 쌀 3되
稷米三升	: 조 3되
祭酒壹罇	: 청주 1항아리(丙午秋享以邦禁 代用玄酒)
牲猪壹首	: 돼지 1수
鹿脯五條	: 쇠고기포 5꼬치(庚申春享以官令禁屠 脯二首代用雉)
鹿醢壹器	: 쇠고기해 1그릇
魚醢壹器	: 조기해 1그릇
青菹壹器	: 미나리 1그릇
韭菹壹器	: 부추 1그릇
黃栗貳升	: 밤 2되(丁巳秋享 減壹升)
大棗貳升	: 대추 2되(丁巳秋享 減壹升)
大口魚貳尾	: 대구 2마리
大燭壹雙	: 대촉 1쌍
小燭壹雙	: 소촉 1쌍
祝文紙壹張	: 축문지 1장
白文席壹張	: 한지 1장
香壹封	: 향 1봉지
硯匣壹座	: 연갑 1개
古里壹部	: 고리 1개

際

<從祀位祭需物目>

大米三升	: 쌀 3되
稷米三升	: 조 3되
祭酒壹罇	: 청주 1항아리
牲猪壹首	: 돼지 1수
鹿脯五條	: 쇠고기포 5꼬치
魚醢壹器	: 조기해 1그릇
靑菹壹器	: 미나리 1그릇
黃栗貳升	: 밤 2되(丁巳秋享 減壹升)
大棗貳升	: 대추 2되(丁巳秋享 減壹升)
小燭壹雙	: 소촉 1쌍
香壹封	: 향 1봉지
白文席壹張	: 한지 1장

際

제수를 정리하여 근봉할 한지로 묶는다.





1	2
	3

1. 초헌관·집례·재유사 좌정
2.3. 근봉 謹封





물목 확인

제물봉치祭物奉置



물묵 확인 후 간단하게 주안상을 받는다.





제물을 사당으로 옮긴다.



제물을 사당에 옮긴 후 빠진 것이 없는지 살핀다.

제물 근봉을 마치면 주사에서 주안상을 마련하여 초헌관 이하 입회한 제관 및 유사들에게 올린다. 주안상을 물리면 근봉한 제물을 사당으로 옮겨서 봉치奉置한다. 원래는 전사청에 옮겨놓는데 지금은 전사청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사당에 들어놓는다. 이때 초헌관을 비롯하여 모든 제관들은 사당 아래에 2열로 도열하였다가 제물이 사당으로 들어갈 때 읊어서 예를 갖춘다. 제물은 사당의 중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다. 제물 봉치가 끝나면 제관과 학생들에게 야화(밤참)로 과일, 떡 그리고 술 등이 차려진 상이 마련되어 환담하는 자리를 갖는다.



제물진설祭物陳設

제물진설祭物陳設

사당에 옮겨놓은 제물은 향사 당일 새벽에 다시 각 품목별로 소정의 제기에 담아 진설한다. 아침 6시경 진설담당 집사들은 전날 밤 봉치시에 근봉한 용기를 개봉하여 정위와 종사위로 구분하여 실찬(實饌)한다. 변두는 정위에 4변 4두, 종사위에 2변 2두로 차등을 두고, 보궤는 1보 1궤, 희생은 저생(猪牲: 돼지고기) 한 가지로 정위와 종사위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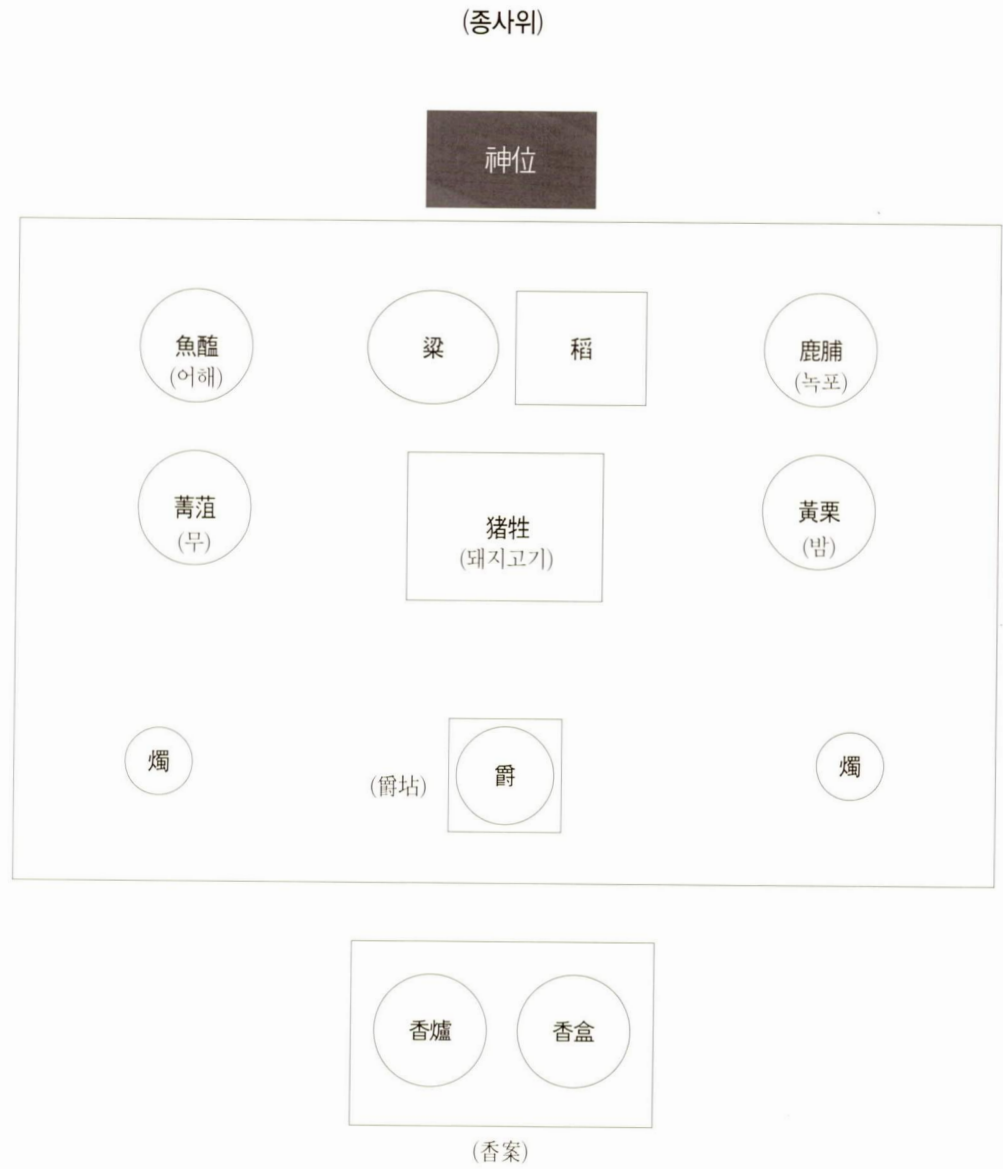
정위의 좌4변은 어수(魚鮪: 대구포), 녹포(鹿脯: 소고기로 대용), 건조(乾糲: 대추), 황율(黃栗: 밤) 네 가지를 담고, 우4두는 어해(魚醢: 명태), 녹해(鹿醢: 소고기 산적), 청저(靑菹: 무), 구저(菹: 미나리로 대용) 네 가지를 담아 진설한다. 종사위는 좌변에 녹포와 황율, 우두에 어해와 청저 두 가지씩 담아 진설한다. 보궤에는 쌀, 궤(籩)에는 기장을 담아 변두의 사이에 동·서로 놓는다. 저생을 담은 조(俎)는 보궤의 남쪽 중앙에 진설한다.

병산서원진설도

（屏山書院陳設圖）



병산서원지설도
(屏山書院陳設圖)





(4) 향사절차

취위就位

향사 당일 6시 30분경 제관들은 예복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입교당) 대청에 개좌한다. 헌관들은 관복차림에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고 홀을 들었다. 초헌관은 당상관이 입는 자색 관복, 다른 헌관은 당하관이 입는 청색 관복을 입어 역할을 구별하였다. 다른 제관들은 모두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 유복 차림이다.

예복으로 정제한 제관 일동은 사당 문외위에 두 줄로 마주보며 상읍례를 행한다. 알자와 찬인이 먼저 묘정 계간 배위에 나아가 재배한 후 자리에 들어간다. 모든 집사들은 묘우에 출입할 때 동문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온다. 찬자(집례)의 창홀에 따라 알자와 찬인이 각각 헌관을 헌관위에 인도한다. 축과 제집사가 재배한 후 관세위에 가서 손을 씻고 각각 자리에 들어간다. 축은 주독主讀을 개독하고 보궐의 뚜껑을 연다. 위패에는 정위에 ‘영의정문충공서애류선생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 종사위에는 ‘증이조참판수암류공 贈吏曹參判修巖柳公’이라 적혀 있다. 헌관들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헌관 배위에 들어가 재배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행사하기를 청하면 정식으로 행사가 시작된다.

분향례焚香禮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고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향을 세 번 피운다. 삼상향三上香을 마치면 초헌관은 자리로 돌아온다. 헌관은 묘를 출입할 때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온다. 병산서원에서는 분향례만 행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는 없다.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준소에 가서 사준이 작주하는 것을 살핀 후,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한다. 봉작은 술을 받아 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 꿇어앉아 헌관에게 드린다. 헌관은 작을 받아 두 손으로 받들어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어 신위전 서쪽 제 1점에 올린다. 축이 헌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때 모든 제관들은 부복한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아헌관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초헌 때와 같은 순서로 준소를 거쳐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한다. 의례절차는 초헌례 때와 같지만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제 2점에 올리는 것이 다르다.



1

2

1. 상음례 상음례
2. 사당으로 이동







재배 再拜





1. 집사 관세 盥洗
2. 개독 開讀





분향례 焚香禮



1.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한다.
2. 삼상향 三上香



초헌례 初獻禮



- 1. 준소 樽所(작주 酌酒)
- 2. 헌작 獻爵
- 3. 독축 讀祝





아헌관 인도

아헌례 亞獻禮



헌작 獻爵

종헌례 終獻禮

종헌례는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종헌관은 정위에 헌작하고, 동시에 분헌관은 종사위(從祀位)에게 분헌례를 행한다. 종헌관과 분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함께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종헌관은 정위 준소, 분헌관은 종사위의 준소를 거쳐 각각 정위와 종사의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종헌관은 정위에 헌작하고, 분헌관은 종사위에 삼상향한 후 헌작한다. 헌작이 끝나면 모두 자리에 돌아간다.

종헌관 헌작 終獻官 獻酌



분헌관 분향^{焚香}



음복례 飮福禮

음복례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음복하는 의례이다. 축이 준소에 나아가 음복잔에 복주를 뜨고, 다시 도마와 칼을 들고 신위전의 조육(胙肉)을 조금 떼어 낸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묘우 서문 앞에 마련된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 앉는다. 축이 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술잔을 헌관에 드리면, 헌관이 이를 받아 마신다. 빈잔은 축에게 주어 준소에 돌려놓는다. 축이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면 헌관은 조를 받아 맛보고 다시 축에게 주면 축은 이를 받아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가면 헌관들은 모두 함께 재배한다.





1. 음복주 작주
2. 음복상
3. 조육(猪肉)을 덜어낸다.





철변두 徹邊豆

철변두는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축이 사당에 들어가 변과 두를 하나씩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제위자 및 학생은 모두 함께 재배한다. 이로써 신위께 드리는 모든 의례는 끝나게 되므로 축은 주독을 단는다.

1

2

1. 음복 歠福

2. 철변두 徹邊豆





폐독 閉讀



보계의 두경을 닫는다.



망예^{望禮}

망예는 제향을 마치고 축문을 땅에 묻는 의례이다.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묘우 서쪽에 있는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축이 축판을 들고 서계로 내려가 감^감: 구덩이에 묻는다.

이로써 모든 의례를 마치고 알자가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예필을 고한다. 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 축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에 내려가 재배한 후 나간다. 마지막으로 알자와 찬인은 배위에 내려가 재배한 후 나간다.

망예望瘞



- 1.2. 망예望瘞
3. 축문을 감에 묻는다.





1. 집사 재배 再拜
2. 향사 후 사당을 내려가는 제관들







음복례 飲福禮

아침 7시 입교당에 개좌하여 음복례를 행한다. 학생이 “개좌 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헌관 이하 모든 제관이 입교당의 동·서·남쪽에서 중앙을 향해 도열하여 서서 상읍례를 행한 후, 좌정하면 음복상이 들어온다. 음복상은 헌관들은 모두 독상으로 예의를 차렸고 기타 제관들은 두 사람씩 검상으로 차렸다. 음복상에는 제향에 사용한 포와 해, 과일이 조금씩 올랐고 술잔이 놓여 있다.

학생이 주전자를 들고 초헌관으로부터 차례로 술을 따르고 난 후, “초헌관님 순배^{巡杯}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모두 잔을 들고 상읍한 후 마시고, 마신 후에 다시 상읍을 하고 잔을 내려놓는다. 다음은 아헌관의 순배 차례이다. 먼저 아헌관의 술잔에 먼저 따르고 나서 초헌관, 종헌관 및 제관의 순으로 차례로 술을 따른다. “아헌관님 순배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역시 상읍한 후 술을 마신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종헌관 순배를 한다.

삼헌관의 순배가 모두 끝나면 제집사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曹司]이 헌관 앞으로 나와 쪼그려 앉아 “제사공론^{祭祀公論}합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축과 집례 및 다른 제관들을 향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론을 청한다. 이에 문중 어른이 “제사 행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별 의견이 없으면 다음 연장자가 다시 나와서 “행사에 실례는 없었습니까”라고 차례로 묻는다. 이때 의견이 있으면 거론하여 제사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사공론 마칩시다”하고 공론을 끝낸다.

공론이 끝난 후에는 차기 임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병산서원 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원회에서 선임한 임원을 발표하였다. 차기 원장은 전국무총리 이현재씨가 선임되었음을 알린다. 이로써 모든 회의를 끝내고 학생이 “과좌^{罷座}합시다” 삼창으로 과좌하여 향사의 모든 예를 마친다.











1

2

1. 아침식사
2. 향사를 마치고 돌아간다.



2)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서원향사에 사용되는 제기는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제기의 명칭과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제수의 차림새 역시 그러하다. 서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전례인 향교석전제의 제수에 준한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수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예찬禮饌을 참고하여 병산서원의 제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두邊豆

변邊은 마른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 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현재 성균관 석전대제는 대사의 예를 적용하여 12변 12두를 차리고 향교는 소사의 예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서원은 이보다 낮추어 4변 4두로 차린다. 병산서원에서는 정위에 4변 4두를 차리고 종향위에는 2변 2두를 차린다.

변邊에는 어수魚鱸·녹포鹿脯·건조乾棗·황율黃栗 네 가지를 담는데, 어수는 대구포를 사용하고 녹포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 산적꼬치로 대용한다.

두豆에는 어해魚醢·녹해鹿醢·청저靑苴·구저韭菹 네 가지를 담는데, 어해는 마른 명태를 사용하고, 녹포는 역시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사용한다. 청저는 생무를 사용하고 구저는 미나리를 대용한다.

중사위從祀位는 2변 2두로 좌변左邊에 녹포와 황율, 우두右豆에 어해와 청저 두 가지를 차린다.



변邊



두豆

보궤籩簋

보궤는 유기로 만든 제기인데,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는 둥글다. 보籩에는 도稻·쌀와 량粱·기장을 담고, 궤簋에는 서黍·수수와 직稷·피쌀을 담는다. 보와 궤는 항상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다. 향교석전에서는 오성위에 모두 2보 2궤를 갖추어 차리는데 병산서원에서는 정위와 중사위 모두 1보 1궤로 하고 있다. 보에는 쌀을 담아 신위의 왼쪽에, 궤에는 기장을 담아 오른쪽에 놓는다.



보籩



궤簋

조俎

조俎는 제향시에 소·양·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은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 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석전에는 양성과 시성 두 가지를 올린다. 병산서원에서는 시성 한 가지만을 쓰는데 돼지[生豬] 한 마리를 머리에서 꼬

리까지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 정위와 종사위에 올린다.

비篋

비篋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은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이다. 폐백은 원래 흰 모시[苧布]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보통 흰 면포나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병산서원에서 는 폐백을 올리지 않는다.



작爵

작爵

헌작 때 사용하는 동爵으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위에는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으로 셋, 종사위에는 분헌 레 때 사용할 하나를 준비한다.

점拮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 놓는 것은 축점祝拮,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拮이라고 한다.



준樽과 작爵

준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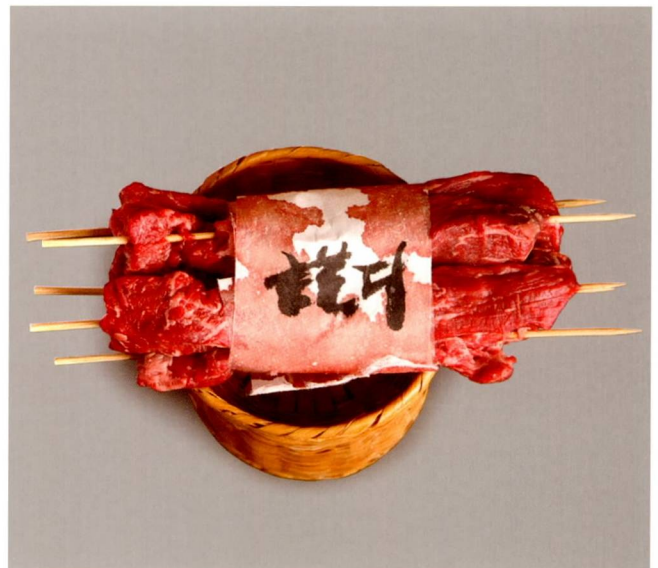
준樽은 제향 때 올리는 술을 담는 용기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아헌·종헌에 각각 희준犧樽·상준象樽·산뢰山罍 등 다른 것을 사용하며 제주祭酒도 각기 다르다. 희준은 소의 모양을 한 것으로 초헌용의 예제醴齊를 담고, 상준象樽은 코끼리 모양을 한 것으로 아헌용의 양제盎齊를 담으 며 산뢰山罍는 산의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종헌용의 청주淸酒를 담는다. 서원에서는 산뢰 한 종류만 있고 술도 청주 한 가지만을 올린다. 병산서원에도 유기로 된 준이 있었으나 수년전 도난을 당하였다고 하며 지금은 사기로 된 술향아리를 사용하고 있다.

준소樽所는 제향시 술을 따르는 곳으로 묘우 밖 계단 아래에 정위와 배위용으로 각각 높은 받침대를 놓고 준樽과 작爵: 술을 따는 국자 하나씩을 올려놓았다.

제향에 쓰는 술은 종부 최소희 여사가 종가에서 직접 담근 가양주를 쓴다. 종부는 어릴 때 부터 배운 친정인 경주법주의 비법을 계승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주를 빚어내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작爵은 제상 앞에 정 위에는 셋, 배 위에는 하나를 준비해 두었다가 헌작레 때 봉작 이 준소로 가져 가서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는다.



두에 담긴 제수



변에 담긴 제수







3. 병산서원 향사의 특징

병산서원의 향사에서 특징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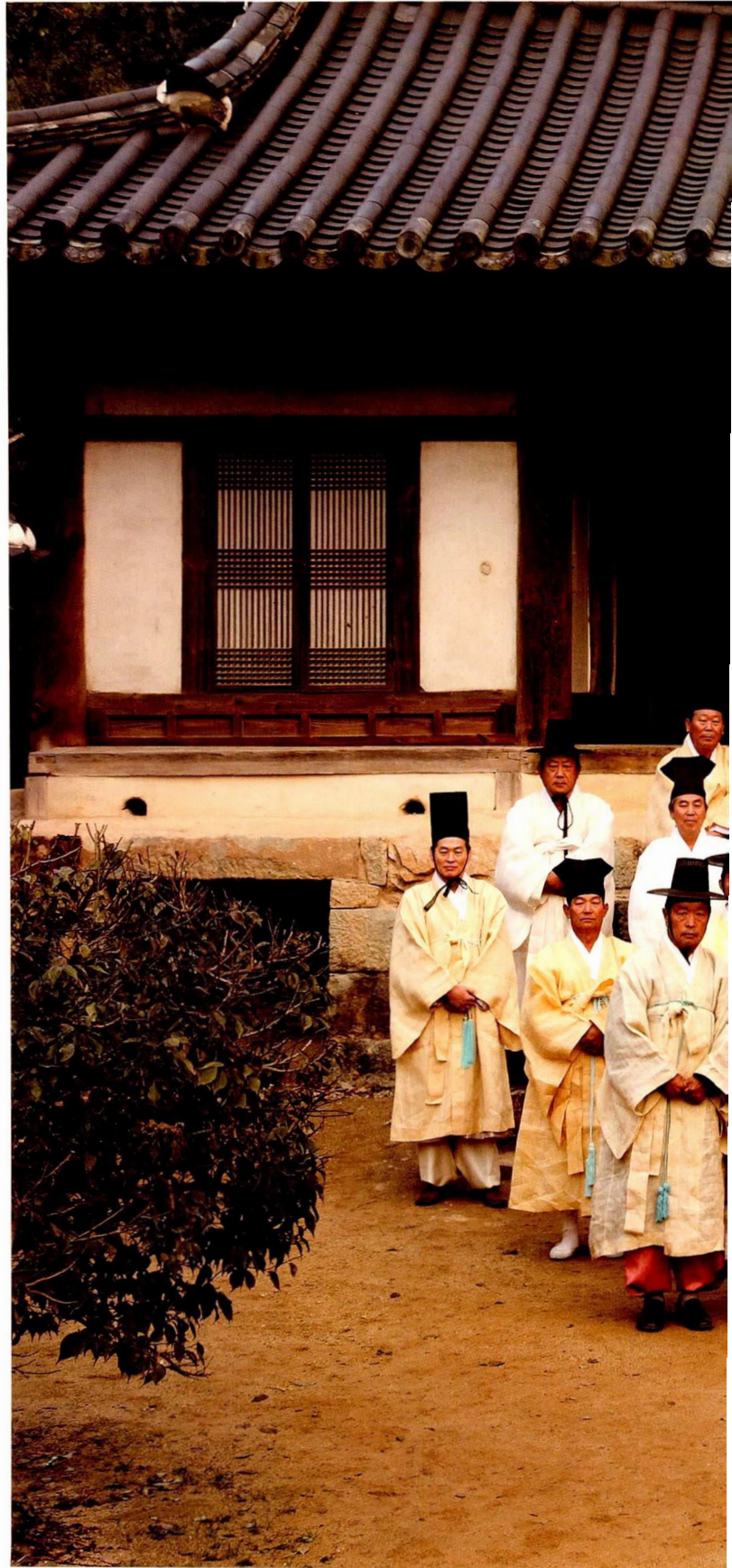
첫째, 춘추향사의 헌관 및 주요 집사는 서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인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병산서원에 출입하는 문중에서 선출된다. 서애 류성룡의 종손과 서원의 후신인 풍산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서애 제자 문중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초헌관은 수임(원장)이 되고 기타 헌관은 인근의 비동·가일·구담·소산·우릉골 등 12개 제자 문중의 종손이나 종손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천거를 받아 선임하며 축과 집례 등 주요 집사는 학덕과 연치를 중시하여 원로 유림 중에서 천망한다.

둘째, 향사 시간은 종래 자정을 지나 축시(丑時 : 오전 1~3시)에 거행해 왔으나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향사지내는 것으로 변경하여 봉행하고 있다. 학생들도 입재에서부터 제향이 다 끝나는 파제(罷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향준비와 제향과정에 참여시켜 제향의 의미와 절차를 숙지하게 한다. 서원의 역할이 존현(尊賢)과 양사(養士)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향사에 참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향사시 묘우의 출입은 제관들은 동문을 들어가 동문으로 나오는 ‘동입동출(東入東出)’의 예를 따르고 있다. 일부 다른 서원에서 소위 ‘동입서출(東入西出)’로 출입하는 예를 보이고 있으나 『국조오례의』 등 법전에 모든 제관은 ‘동입동출’로 출입례가 정해져 있다. 다만, 병산서원에서는 헌관들은 들어갈 때는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다르다.

넷째, 제물봉치의 의례가 아주 엄숙하게 잘 전승되어 오고 있다. 향사전일 초헌관의 입회 아래 준비된 제물을 각 품목별로 제물물목단자와 대조해가며 제수의 흠결여부와 수량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근봉(謹封)하는 절차와 전 제관이 문외위에 도열하여 묘우로 봉치하는 제물에 대하여 예를 표하는 의례는 잘 전승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제물 중 시생(牲牲)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아 머리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꼭 반으로 분할하여 주향위와 종사위에 나누어 진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祭酒)는 종부 최소희 여사가 종가에서 직접 빚어 만든 가양주를 쓴다. 종부는 친정이 경주 교동 최부자집으로 어릴 때부터 전통민속주 제조방법을 몸에 익혀 와서 제주를 담근다. 찹쌀로 죽을 쑀어 누룩과 섞어 밀술을 만들어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켜 용수로 걸러내는데 홉술이라 한다. 제향에는 홉술을 다시 한 두차례 더 발효시켜 정제한 겹술(덧술)을 만듦에 제향에 사용한다.

다섯째, 서원향사 의례에서 다른 서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관학인 석전과 마찬가지로 신위께 폐백을 예물로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는데, 병산서원에 향사에는 전폐례가 없다. 현작례에서는 주향에게만 삼헌례를 행하고, 종사위에게는 종헌례 때 분헌관이 분헌례를 행한다. 배향신위를 일렬로 배치하고 신위마다 각각 독축하는 열향식(列享式)의 서원과 는 행사절차에 차이가 있다. 주향과 종사위가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단헌으로 분헌한다.





院任錄

一

4. 병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1) 원규院規

서원의 운영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규정한 자체 규약으로 ‘원규院規’가 있다. 병산서원의 경우 두 건의 원규가 확인되는데, 임고서원臨臯書院 소장 문서 중 「서원규범書院規範」에는 임고서원 원규와 함께 소수紹修·천곡川谷·금오金烏·도산陶山·병산서원屏山書院의 원규가 수록되어 있다. 각 서원의 원규는 독립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 관련되는 서원의 원규가 함께 나열되어 있다. 유사有司 항목의 경우 여섯 개 조항이 있는데 조항 끝에 ‘도산원규陶山院規’·‘천곡원규川谷院規’·‘병산원규屏山院規’와 같이 관련 서원 이름을 적었다.⁰⁷

다른 자료인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는 1718년 3월 상순(戊戌三月上浣日)에 당시 원장이협李浹이 작성한 문건이다. 『古文書集成二十(屏山書院篇)』에 수록된 이 문건은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향례취사개규통문享禮聚士改規通文’·‘원사절목院事節目’ 등 절목, 완의 등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제례의 봉행 등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⁰⁸

두 자료 중 임고서원의 「서원규범」 중 ‘병산원규’로 표기된 것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⁰⁹

유사有司

一. 각자 상·하 유사를 감당할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그 이름을 한 종이에 늘어 적은 뒤 권점한다.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상유사로 삼아 서원 안의 여러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유사는 미포米布의 출납과 공궤供饋·염산鹽散, 타작打作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께 보고한 뒤 시행한다.

(各舉可堪上下有司者 列書其名于一紙而圈點之 以點數最多者爲之上有司 主院中諸事 下有司主米布出納供饋斂散打作等事 凡事必稟於院長而行之)

一. 하유사가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차정된 사람과 입회 하에 계수하여 관에 고하도록 해야 하며, 문서로만 인수인계하는 것은 불허한다. 만일 수량이 착난 것이 있으면 그 수를 채워 넣은 다음에야 교체를 허락한다. 그중에 만약 태만함이 너무 심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아 전곡이 많이 모자라게 하고도 그 즉시 숫자를 보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유사가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계산하여 징수한다.

(下有司傳掌時 必與新差之員 眼同計數告官 不許只以文書相傳授 萬一有欠縮之數 則責令充補其數 然後方許遞代 其中如有惰慢尤甚 不察其事 使錢穀多缺 而不即充數者 有司告於官 治罪計數徵)

07 박종배는 「屏山書院 교육 관계 자료 검토」(『屏山書院의 歷史와 文化』, 2008년 한국서원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에서 「임고서원 자료에 수록된 병산원규」가 원규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 조항이 選錄된 것이라고 하였다. 임고서원 소장 자료인 「書院規範」은 李樹健 외,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국사편찬위원회, 1999) 431~566쪽에 수록(영인)되어 있다.

08 「屏山書院記事」는 「古文書集成二十(屏山書院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81~87쪽.

09 조선시대에 작성된 원규 등 서원 소장 자료는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모두 영인되었으며,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현재 서원 운영과는 별개로 자료적 가치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병산서원 유사는 “류성룡의 스승인 이항을 모신 도산서원 원규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내용이 첨가된 정도가 병산서원 원규”라고 아는 정도이다.

여기에 인용된 병산서원 원규(選錄)와 번역문 등은 박종배, 「屏山書院 교육 관계 자료 검토」(『屏山書院의 歷史와 文化』, 2008년 한국서원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에 정리, 수록한 것을 재인용하였으며, 기존 번역문 윤문과 누락 부분(院士의 마지막 조항) 번역은 한국국학진흥원 기호철 선생이 도와주었다.

有司

一院有司以近居廉幹人二員差定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為上有司皆二年相通陶山院規

一院長之任不可數輕改至有不得已之故不容不改則自具狀告官後改卜

新員不敢胡亂薦舉必得衆所推服一意敬信者處之川谷院規

一置院長錄前院長并書通任年月令後之觀者有所披閱而欽戒亦庶幾不為無助也有司亦書之川谷金烏院規

一各舉可堪上下有司者列書其名于一紙而圈點之以點數最多者為之上有司主院中諸事下有司主米布出納供饋飲散扞休等事凡事必禀於院長而行之屏山院規

一上有司新舊通代凡院中規模曲折並皆喻告舉行如書冊什物亦皆傳掌官川谷院規

官川谷院規

一下有司傳掌時必與新差之員眼同計數告官不許只以文書相傳授萬一有欠縮之數則責令充補其數然後方許

通代其中如有惰慢尤甚不察其事使錢數多缺而不即充數者有司告於官治罪計數徵屏山院規

院士

一開院園欲迎賢若隘入則不肖者間之非徒耗廩將有損於書冊什物愚者至而賢者必不肯來亦荒廢廟院之一漸也其擇尤不可不謹也竹溪志

一以七八薦入院陶山院規

一每於享祀之日座中每人各薦一人進于上有司前通可否採衆議而定之書于冊又各於名下並書所引之人凡所薦進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雖未滿弱冠而司馬入格才行超異可並

三益之列者並可許入大槩只觀學行之何如豈必拘於科舉之得失哉川谷院規

院規

院規

院規

원사院士

- 一. 서원에 들이는 절차는, 유생이 모두 모여 각기 받아들일만한 사람을 추천한 뒤 연소하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정도를 따를 줄을 조금은 알고 행실에 오점이 없어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취하는데 그 이름을 모두 적어 놓고 권점하여 취한다.

(凡入院 儒生齊會 各舉堪入者 取年少志學稍知嚮方無點污有將來之人 同書其名而圈點取之)

- 一. 여럿이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삼가 예절을 지키며 의리를 강마講磨함으로써 이택麗澤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유생들은 강론의 여가마다 잡스러운 일로 희롱하며 놀아서는 안 되며 수시로 관례, 혼례 등과 사상견례士相見禮 · 투호 · 향음의 의식을 강습함으로써 옛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를 차린 뜻을 살피야 한다. 서로 담론할 때에도 향간의 음담패설과 사리사욕에 관계된 일을 거론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의리와 고금 인물의 현부賢否 · 치란治亂의 득실 · 문장의 고하만을 강론함으로써 견문을 넓혀야 한다.

(凡群居 最欲正容謹節講刷義理 以收麗澤之益 諸生每於講論之暇 毋爲雜事以資戲遊 時時講習 冠昏等禮及士相見禮投壺飲酒之儀 以寓古人爲俎豆設禮容之意 其談論之際 亦毋雜以閭巷鄙悖淫媒及利欲之事 惟講說義理及古今人物賢否治亂得失文章高下 以廣聞見)

- 一. 회강할 때의 표정은 단정하면서도 엄숙히 하고 여럿이 있을 때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장중하게 하여야 한다. 뒷사람의 우열을 품평하거나 남의 글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고을의 정사나 동향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것만 말하고 잘못은 말하지 않는다.

(會講之容端而肅 群居之容和而莊 毋得品藻長上優劣 訾毀外人文字 郡邑政事鄉閭人物稱善不稱惡)¹⁰

10 박종배의 인용에서 누락된 부분이다.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에 수록된 원문(영인)을 확인하여 추가하고 번역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 기호철 선생이 번역했다.

양현養賢

- 一. 서원에 들어온 유생은 5인을 상공常供하는데, 공궤한 수를 통계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한 궤에 별도로 저장한다. 만약 그 달에 유생이 모이지 않으면 그 비축미를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시 다음 달의 공미에 보태 저장하였다가 공궤한다. 1년 내에 유생들에게 쓰는 달이 적어 비축미가 많이 쌓여도 다른 곳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 수년 뒤에 공미의 숫자가 많아지고 유생이 평소보다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는 임시로 작정하여 상공하는 5인을 넘더라도 인원을 헤아려 더 제공해도 무방하다.

(入院儒生 常供五人 通計支供之數 逐日眷鑒 別藏一櫝 如其月儒生不會 其畜米毋得他用 又眷次月之米 添藏而供之 一年之內 儒生所用之月稀罕 而畜米多積 亦不得移用於他處 數年後 米數即多 而儒生於常數外多聚 則臨時酌定 雖五員之外 量數加餉無妨)

- 一. 찬가로 1년에 통용하는 잡곡이 3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매달 2석 5두를 사용하고, 매달 점검하여 별도로 저장해 두었다가 유생이 많이 모이는 달에 공미의 예에 따라 변통하여 다른 용도로 쓴다.

(饌價 一年通用雜穀 母過三十石 每月用二石五斗 逐月上下 亦藏于別家 儒生多會之月 則依供米
例 推移另用)

- 一. 상·하 유사와 외부의 빈객으로 무시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유생에게 쓰일 공미를 사용하여 어지럽게 섞
이고 불려나가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를 헤아려 공미를 비축하되 얼마간은 불시의 수요에 대
비하도록 허락한다. 이 경우에도 분명하게 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어 훗날의 점고에 증빙 서류로 삼도록
한다.

(上下有司及他賓客無時出入者 則不可用儒生所餉之米 使之亂雜難繼 亦量數畜米 少許 備不時
之需 亦分明計數置簿 以憑後考)

상정^{相正}

- 一. 여러 유생 중 만약 독서에 힘쓰지 않고 날마다 드나들며 직접 고기를 잡고 사냥하고 제멋대로 잡기를 일삼
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경우는 면책하고 중한 경우는 손도한다.

(諸生 如有不動讀書 逐日出入 親自漁狩獵 或浪事雜技者 輕則面責 重則損徒)

- 一. 남의 집을 멋대로 풀어보거나 사사로운 편지를 훔쳐 본 자는 면책한다.

(擅發他人莊篋 窺覘私書者 面責)

- 一. 전복^{典僕}에게 폐를 끼치는 자는 손도한다.

(貽弊典僕者 損徒)

전복^{典僕}

- 一. 무릇 서원의 하인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원장과 유사에게 고하여 치죄토록 한다.

(凡院中下人有罪 必告院長及有司而治之)

(2) 운영위원회

현재 병산서원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이다. 서
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로 손꼽는 춘추제향 때의 원장과 제관을 선정하고, 한 해 결산
이 보고된다(살림 규모가 적어 예산은 보고하지 않는다). 대외 활동이나 서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운영위원 수는 7~9명인데 주로 7명(2012년 현재도 7명)이며 두 명의 당연직과 다섯 명
의 선출직으로 구성된다. 두 명의 당연직은 서원 사당에 배향된 주벽^{主壁}의 주손(류성룡의 종

손, 운영위원장)과 풍산중고등학교 교장이며, 선출직 다섯 명은 병산서원과 관련된 문중 사람들이다.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때쯤 새로운 다섯 곳의 문중을 정해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문중은 내부 논의를 통해 한 명씩을 추천한다. 현재 다섯 명의 선출직 위원은 예안이씨(禮安李氏(上里里))·안동권씨(安東權氏(佳谷里))·순천김씨(順天金氏(九潭里))·안동김씨(安東金氏(素山里))·풍산김씨(豐山金氏(五美里))에서 추천된 인사이다. 이들 문중은 적절하게 순환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중 이외에도 순흥안씨(順興安氏)·광산김씨(光山金氏)·진성이씨(眞城李氏)·재령이씨(載寧李氏)·흥해배씨(興海裴氏)·영양남씨(英陽南氏)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위원회 참여를 요청받은 문중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고사하기도 한다. 운영위원 역시 임기 중에 상(喪)을 당하거나 하는 불운한 일을 겪는 경우와 고령이나 질병으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임한다.

병산서원 운영에서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유사(有司)이다. 별유사(別有司), 또는 별임(別任)으로도 부르는 유사(有司)는 2년 임기이며 인원은 2~3명이다. 임기는 2년이지만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요즘 상황에서는 계속 연임된다. 현재 유사인 류시주(柳時柱, 1943년생), 류한옥(柳漢郁, 1949년생) 유사 역시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세대 이상을 병산서원 유사로 봉직하고 있다. 유사(有司)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자발적이거나 선임 유사의 추천을 받는다. 외지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귀향했던 류한옥 유사(有司)는 류시주 유사(有司)의 권유로 선포(誓) 이 일을 맡았다가 벌써 7~8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유사(有司)는 서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을 도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춘추제례를 준비한다. 서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역시 유사(有司)를 통해 신청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라도 개설되면 교육 기획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우리나라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신청하는 바람에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까지도 떠안게 되었다.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여 논의된 내용이나 의결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가 추진한다.

서원의 운영위원회가 서원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의결기구이지만 운영위원들의 구성이나 논의하는 내용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점에서 병산서원을 둘러싼 유림들의 대의기(代議機構)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발생하게 된다. 서원 재산의 처분이나 토지의 수용, 유림의 공론을 집결시켜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유림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회가 소집된다.

당회(堂會)는 재지유림들의 결사(結社)로서 유회(儒會) 또는 유림공론(儒林公論)이라고도 한다. 당회는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에도 있었으나 유림공론의 성격상 서원이 중심 거점이 되었다. 당회의 성격은 서원 운영에 관한 의결을 비롯하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유림들의 여론을 환기하거나 집결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대의명분에 관계되는 일에는 즉시 당회를 열고 통문(通文)을 돌려 여론의 규합을 꾀하거나 자기 서원의 태도를 표명하였다.¹¹ 만인소를 올리거나 유교적 대의명분을 근거로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시대가 아니므로 당회가 소집될 일은 없다고 봐야

11 鄭淳睦, 「당회(堂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유림의 공의를 모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 당회를 주재하는 것은 당회가 소집될 때의 원장이다. 가장 최근 소집된 당회로는 2006년 빙계서원의 복설과 추가 배향에 대한 유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빙계서원(氷溪書院)은 1556년(명종 11) 창건되어 1576년 장천서원(長川書院)으로 사액되었으며, 1600년(선조 33)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로 옮겨 빙계서원(氷溪書院)으로 개칭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다가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창건 당시에는 김안국과 이언적을 배향하였고 이 건 후에는 김성일(金誠一)·류성룡(柳成龍)·장현광(張顯光)을 추가 하여 모두 다섯 분을 모셨다. 훼철 후 복원하지 못하다가 2002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복원이 시작되어 2006년 5월 완공하였다.¹²

빙계서원에서는 서원을 복원하면서 기존에 배향되던 다섯 분 이외에 1600년 이건을 주도했던 영천인(永川人) 학동 이광준(鶴洞 李光俊)을 추가로 배향하기로 하였다. 빙계서원은 서원 복원과 이광준 추가 배향에 따른 유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자신들이 배향하는 류성룡을 주벽으로 모시는 병산서원에도 통문을 보냈다. 병산서원에서는 관련된 문중을 중심으로 유림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빙계서원의 복설과 이광준의 추가 배향을 승인하였다.

12 李東春, 『빙계서원(氷溪書院)』,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와 의성군청 웹사이트.

2)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서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을 들 수 있는데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제향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병산서원은 서원의 본래 목적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림 총의로 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1946년 서원 재산으로 학교법인 병산교육재단(屏山教育財團)을 설립하였다. 1946년 풍산초등학교(豊山初等學校) 교사 일부를 빌려 4년제 병산초급중학교(屏山初級中學校)를 개교하였고, 1947년 풍산읍 안교리에 부지를 마련하여 교사를 신축하였다.¹³ 1967년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하여 교명을 풍산중학교(豊山中學校)와 풍산고등학교(豊山高등학교)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병산서원 관계자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재단을 '서원재단'이나 '풍산재단'으로, 풍산중고등학교는 '서원학교'로 부르며 깊은 애정과 높은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병산서원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교육 기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까지 풍산중고등학교를 통한 정규교육 이외에 병산서원에서 운영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2010년부터 봄·가을로 사회 저명인을 초청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만대루나 입교당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는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고 참가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장소 때문에 1회 80~100명 정도가 참석한다. 2012년의 경우 봄 강좌

13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 『屏山書院』(2007년)에 근거하였다. 풍산중고등학교 웹사이트(연혁)에는 1947년 병산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병산초급중학교(屏山初級中學校)를 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는 부산대학교 류명희 교수가, 가을 강좌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송복 교수가 강의했다.

정기적인 봄·가을 강좌 이외에도 최근 학교폭력과 높은 자살률 등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학생과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등재가 결정된다면 이를 계기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전승과 지속

병산서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서원이 가지고 있던 교육 기능은 풍산중고등학교를 통해 실현되고 제향만이 남아 있지만, 불편한 교통 덕분에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짜임새 있는 건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산서원을 찾는다. 서원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적은 편이지만 건물과 경관이라는 하드웨어는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병산서원이 현대와 만나는 방식은 건물의 적극적인 외부 개방, 풍산중고등학교의 춘추향사 제관 참석 기회 등으로 나타난다. 병산서원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대학교나 기업, 단체들에게 서원을 개방해 왔다. 대학으로 대표되는 연구기관들이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병산서원에서 연수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풍산금속의 경우 신입사원 연수나 간부 워크숍을 서원에서 갖는다. 건물의 외부 활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병산서원은 전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적 실용이 구축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춘추향사에 제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이제는 병산서원 향사의 전통이 되었다. 매년 제향 때마다 신청을 받아 10명의 학생들을 제관으로 참여시킨다. 서원에서 제공하는 제례복을 입고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 기억은 이들에게 남다른 경험이 되는데, 축시^{註時}에 지내던 제향 시간을 새벽으로 조정하게 된 것도 이들을 위한 배려에서이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대학입시 준비로 기피하면서 2·3학년 중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에 주목할 활동으로 '서애류성룡합^{西厓柳成龍合}' 승조원들을 병산서원에서 교육한 사례가 있다. 서애류성룡합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세 번째 이지스구축함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하여 바다와 물에서 왜적을 막았으며, 재상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류성룡의 이름을 붙여 2012년 9월 취역했다. 이를 인연으로 하회마을과 서애류성룡합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해군과 병산서원은 자매결연 후속 사업으로 승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300여명의 구축함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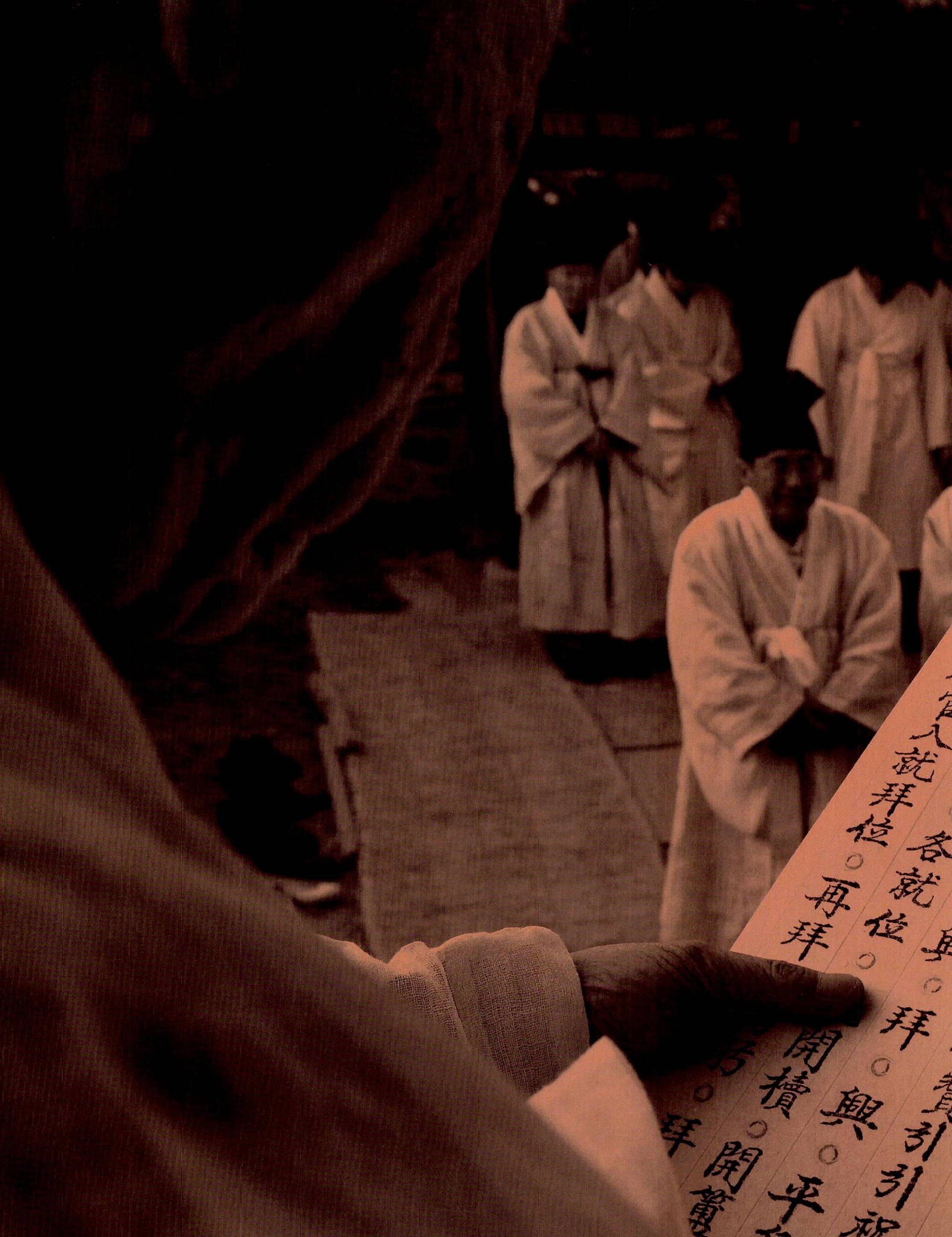
40명 정도씩 여섯 차례에 걸쳐 병산서원에서 이틀간 교육을 실시했다. 구축함의 이름인 류성룡의 일대기와 전쟁수행 능력, 사상을 중심으로 정신교육이 진행되었고, 승조원들의 정신무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 병산서원홀기 ●

謁者及贊引各再拜。執事詣鞠躬。引獻官就位。贊者謁者及贊引自外位。

贊者謂者及贊引自外

병산서원향사홀기(屏山書院享祀笏記)

- 贊者謁者及贊引自外位 先入就拜位 再拜 各就位
(찬자알자급찬인자외위 선입취배위 재배 각취위)
찬자, 알자와 찬인은 외위에서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각자 자리로 들어가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就外位(알자급찬인각인헌관취외위)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은 인도하여 외위로 나아가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再拜(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배위 재배)
찬인은 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詣盥洗位 盥水帨手(찬인인축급제집사예관세위 관수세수)
찬인은 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으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자 자리에 들어가시오
- 祝開櫝(축개독)
축은 독을 여시오
- 開簠簋(개보궤)
보와 궤의 뚜껑을 여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入就拜位 再拜(알자급찬인각인헌관입취배위 재배)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謁者進初獻官之左 請行事(알자진초헌관지좌 청행사)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행사를 청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北向立(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북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시오
- 盥水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神位前 北向立(인에신위전 북향립)
신위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上香 三上香(상향 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俯伏興平身(부복흥평신)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初獻禮(초헌례)

- 謁者引初獻官詣樽所(알자인초헌관예준소)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전작하시오
- 俯伏興少退跪(부복흥소퇴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讀祝(독축)
축은 축문을 읽으시오
- 俯伏興平身(부복흥평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시오
- 盥水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樽所(인예준소)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신위전으로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전작하시오
- 俯伏興平身(부복흥평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及分獻官詣盥洗位(찬인인종헌관급분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종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시오
- 各引詣樽所(각인예준소)
각각 준소로 인도하시오
- 各引詣神位前跪(각인예신위전궤)
각각 신위전으로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上香 三上香(상향 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奠爵(전작)
전작하시오
- 俯伏興平身(부복흥평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飲福禮(음복례)

- 祝詣樽所 以爵酌福酒(축예준소 이작작복주)
축은 준소에 가서 작에 복주를 따르시오
- 祝持俎及刀進 減神位前胙肉(축지조급도진 감신위전조육)
축은 도마와 칼을 들고 신위전의 조육을 조금 덜어내시오
-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跪(알자인초헌관예음복위 서향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祝進獻官之左北向 以爵授獻官(축진헌관지좌북향 이작수헌관)
축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飲卒爵(헌관음졸작)
헌관은 술을 다 마시시오
- 反爵于樽所(반작우준소)
작은 준소에 돌려놓으시오
- 祝北向以胙授獻官(축북향이조수헌관)
축은 북향하여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受胙授祝 祝受胙 降自東階出門(헌관수조수축 축수조 강자동계출문)
헌관은 조를 받아 축에게 주고, 축은 조를 받아 동계로 내려 나가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徹籩豆(철변두)

- 祝入徹籩豆(豆一籩一各移故處)(축입철변두)(두일변일각이고쳐)
축은 사당에 들어가 철변두하시오(두와 변을 각각 하나씩 조금 옮겨 놓음)
- 在位者及學生皆再拜(재위자급학생개재배)
재위자와 학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祝閉櫝(축폐독)
축은 독을 닫으시오

望瘞(망예)

-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 北向立(알자인초헌관예망예위 북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시오
- 祝取祝版降自西階 瘞坎(축취축판강자서계 예감)
축은 축판을 들고 서계로 내려가 구덩이에 묻으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알자진헌관지좌 백예필)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예필을 고하시오
- 謁者引初獻官 贊引各引獻官 以次出(알자인초헌관 찬인각인헌관 이차출)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시오
- 祝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 再拜(축급제집사구복계간배위 재배)
축과 제집사는 모두 계간 배위에 돌아가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以次出(이차출)
차례로 나가시오
- 贊者謁者贊引就階間拜位再拜出(찬자알자찬인취계간배위재배출)
찬자, 알자 및 찬인은 계간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나가시오

진설홀기(陳設笏記)

卓上北端第一行 (탁상북단 제1행)

- 脯籩在左(포변재좌)
포변(녹포)을 신위의 왼쪽(동쪽)에 놓는다
- 醢豆在右(해두재우)
해두(녹해)를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놓는다
- 稻簋在脯籩之西(도보재포변지서)
도보(쌀)를 포변의 서쪽에 놓는다
- 梁簋在醢豆之東(양궤재해두지동)
양궤(기장)를 해두의 동쪽에 놓는다

第二行(제2행)

- 菱仁在脯之南(능인재포지남)
능인(은행)을 녹포의 남쪽에 놓는다
- 栗黃在簋之南(율황재보지남)
율황(밤)을 보의 남쪽에 놓는다
- 菁菹在醢之南(청저재해지남)
청저(무)를 해의 남쪽에 놓는다
- 韭菹在簋之南(구저재궤지남)
구저(부추)를 궤의 남쪽에 놓는다
- 俎床在栗黃韭菹之間(조상재율황구저지간)
조상(희생)을 율황과 구저 사이 에 놓는다

第三行(제3행)

- 幣籠居中(폐비거중)
폐비를 중앙에 놓는다
- 燭二在籠之左右(촉이재비지좌우)
촛대 두 개를 폐비의 양쪽에 놓는다

第四行(제4행)

- 爵拈三尙右(작점삼상우)
작점을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셋 놓는다